

연구보고서 2020-06

2019년도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2020.12

연구진

김태준 책임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 / 간 / 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세계의 많은 사람과 사회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과 활동에는 주기가 있듯이 이러한 위기도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기가 물러날 때까지 참아내는 인내와 위기를 빠르게 물러가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설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은 사람과 사람, 사회와 사회를 연결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산업입니다. 다다익선이면 좋겠지만 건설산업 역시 호황과 불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내와 지혜를 건설산업이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가입니다.

건설산업은 지난 경제위기에 많은 업체들이 워크아웃과 연쇄부도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피해를 받은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업체의 경영실적 동향과 한계기업의 특징을 분석한 이번 연구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지닌 역량과 처한 환경은 최종적으로 기업의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에 기업과 정부가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불황과 위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주요 이슈 파악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민과 국가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유 병 권

요약

I. 서론

- 한계기업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연명조차 할 수 없는 부실기업을 뜻하고 있으며, 산업내 한계기업 증가는 유형자원, 인적자원 등 투입요소의 올바른 활용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 건설산업은 외부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경제위기에 취약하여 연쇄부도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산업의 내실을 파악할 수 있는 한계기업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의 동향을 기업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해 최근 5개년간의 외감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건설업체들의 경영실적을 분석하였음
 - 먼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계기업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의 한계기업 현황을 파악하여 건설업의 현황과 비교 분석의 토대를 마련함
 -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설업 외감기업 현황을 정리하고 외감기업의 경영실적을 세부업종별로 분석하였음
 - 그리고 2017년 이후 최근 3개년의 건설업의 한계기업을 도출하고 이 업체들의 현황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파악하였으며 정상기업과의 주요 재무지표 차이를 분석하였음
- 본 연구의 의의는 건설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규모별 경영실적 분석을 실시하여 건설업의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점과 건설업 내의 한계기업의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여 부실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것임

II. 한계기업의 개념 및 국내 현황

- 한계기업은 외부의 자금지원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을 뜻하고 있으며, 재무구조 상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대출 등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익(영업이익, 순이익 등)이 일정수준 이하로 낮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부채나 부채에 의한 이자가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계기업은 산업내에 정상적인 기업이 감소하게 만들어 국가재정 낭비 및 시장경제 체계에 부합하는 건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산업의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의 한계기업은 2019년 3,475개로 전년대비 7.4%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래로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봤을 때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한계기업 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봤을 때는 부동산 업종에서 한계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랑 비교하였을 경우 도소매, 자동차, 전기전자, 건설업종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국내의 한계기업이 증가한 이유로는 부채비율의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들 수 있음

III.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분석

- 외감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이거나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등의 요인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들은 외부의 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보고해야할 의미를 지님

- 2019년 건설업의 외감기업은 총 2,005개사로 4년 전인 2015년 1,857개사에서 148개사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인 2018년에 비하면 53개사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내 전체 산업의 외감기업 및 건설업체 수가 증가한 가운데 나타났음
- 외감기업이 전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이며, 종합건설업체의 외감기업은 1,339개사(전문건설업: 506개사)로 전체 2,005개사의 66.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규모별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 전체 외감기업의 84.6%(1,697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봤을 때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설업(506개사, 37.6%)보다 건물건설업(833개사, 62.6%)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변동폭도 크게 나타나는 반면, 전문건설업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공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253개사, 38.0%)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기 및 통신업만이 5년 전과 비교 시 소폭 증가하였음
- 건설업 외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071억원으로 종합건설업이 1,323억원, 전문건설업이 61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종합건설업 내에서는 건물건설업(897억원)보다는 토목건설업(1,489억원)이 평균매출액이 더 높았고, 전문건설업종에서는 건물설비 설치공사업(716억원), 전기 및 통신공사업(710억원), 기반조성 및 시설물 공사업(586억원),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492억원), 건설장비 운영업(227억원)의 순이었음
- 건설업의 이익률은 2017년 고점 이후 하락 중이며,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전반에서 나타남
 - 2019년 기준 건설업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5.8%이며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 6.2%, 전문건설업 4.1%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냈으며, 추이로 보면 종합건설업은 2017년(6.8%)이 고점, 전문건설업은 2018년(4.7%) 고점 이후 하락하였음
 - 2019년 기준으로 건설업 전체의 순이익률은 2.9%이며, 종합건설업체는 4.0%, 전문건설업체는 2.9%의 순이익률을 나타남

- 건설업 외감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9.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산업 외감기업의 부채비율 78.5%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IV. 건설업 한계기업 동향 및 특징 분석

-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는데, 건설업 전체의 이자보상배율은 2019년 기준으로 4.8 수준으로 전체 산업의 이자보상배율 7.0보다 낮아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업종으로 볼 수 있음
- 영업이익 보다 이자비용 많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기준이 되는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는 2019년 기준 613개 업체로 2015년 342개사에서 5년간 97.2%가 증가하였으며 종합건설업체가 많은 비중(79.7%)을 차지하고 있음
 -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동향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업 중 건물건설업이 2018년 이후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물건설업 내 42.7%가 이자보상배율 1미만으로 나타나 토목건설업 비중 28.1%, 전문건설업의 비중 17.3%보다 높게 나타남
- 건설업내의 한계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184개 업체로 2017년에 비하면 57개사인 44.9% 증가하였으며, 종합건설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의 증가폭(2.2%P)이 2018년(1.7%P)도 보다 높게 나타남
 - 이러한 한계기업 증가에는 종합건설업종의 한계기업 증가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건물건설업 한계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들어 토목건설업의 한계기업 마저 증가하였기 때문임
- 건설업의 한계기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업종별 비중(한계기업 업체 수/업종내 외감기업 업체 수)을 살펴본 결과 전체 건설업에서 약 12.2%가 한계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종합건설업은 15.8%, 전문건설업은 12.2%의 한계기업 비중을 나타냄

- 규모별 한계기업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전체 184개사 중 25개사로 13.6%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은 159개사로 86.4%를 차지하고 있음
- 건설업 한계기업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8.6%)보다는 비수도권의 비중(9.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수도권(1.9%p)보다 비수도권의 증가율(2.1%p)이 높게 나타남
- 한계기업과 정상기업의 재무지표를 비교한 결과 한계기업은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건설업 전반의 재무지표를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V. 결론

- 건설업 한계기업의 증가는 낮아진 이자비용에도 불구하고 경기하락과 경쟁과다에 기인한 영업이익률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업종 및 규모별로 봤을 때 최근 건설업 한계기업의 증가는 건축업종 그리고 중견 및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 번째는 건설업체 중 일부분을 차지하는 외감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 두 번째로 건설업이 지니는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경영실적 지표를 탐색하지 못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한계기업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계기업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만의 부실기업을 도출하는 경영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건설경기 하락과 한계기업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및 한계기업 감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목차

| | |
|-----------------------------------|-----------|
| 제1장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5 |
| 제2장 한계기업의 개념 및 국내 현황 | 7 |
| 1. 한계기업의 개념 | 9 |
| 1) 한계기업의 개념 | 9 |
| 2) 한계기업의 영향 | 11 |
| 2. 한계기업의 국내 현황 | 13 |
| 1) 부실징후 기업 현황 | 13 |
| 2) 한계기업 현황 | 18 |
| 제3장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분석 | 25 |
| 1. 건설업 외감기업 현황 | 27 |
| 2. 건설업 외감기업 매출 동향 | 36 |
| 1) 평균매출액 동향 | 36 |
| 2) 영업이익률 동향 | 40 |
| 3) 매출액순이익률 동향 | 44 |
| 3. 건설업 외감기업 재무구조 동향 | 47 |
| 4. 건설업 외감기업 경영실적 분석결과 요약 | 52 |

제4장 건설업 한계기업 동향 및 특징 분석----- 53

- 1. 건설업 한계기업 동향 55
 - 1) 건설업 이자보상배율 동향 55
 - 2) 건설업 내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동향 60
 - 3) 건설업 한계기업 동향 66
- 2. 건설업 한계기업 특징 70
 - 1)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70
 - 2) 규모별 한계기업 동향 74
 - 3) 지역별 한계기업 동향 77
 - 4) 한계기업과 정상기업 재무지표 비교 81
- 3. 건설업 한계기업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86

제5장 결론----- 87

-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89
- 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방향 95

참고문헌----- 96

표목차

| | |
|--------------------------------------------|----|
| 〈표 II-1〉 부실징후 기업 수 추이 | 15 |
| 〈표 II-2〉 주요 업종별 부실징후 현황 | 16 |
| 〈표 IV-1〉 기업규모별 업종별 한계기업 현황(2019년 기준) | 74 |
| 〈표 IV-2〉 기업규모별 업종별 한계기업 동향 | 75 |
| 〈표 IV-3〉 지역별 외감기업 및 한계기업 동향 | 78 |
| 〈표 IV-4〉 수도권/비수도권 외감기업 및 한계기업 동향 | 79 |
| 〈표 IV-5〉 지역별 외감기업 및 한계기업 변동 현황 | 80 |

그림목차

| | |
|--------------------------------------------------|----|
| [그림 I -1] 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 6 |
| [그림 II-1] 한계기업과 정상기업의 생산성 차이 | 11 |
| [그림 II-2] 정상기업의 생산활동과 업종내 좀비기업 자산 비중의 상관관계 | 12 |
| [그림 II-3] 정기 신용위험 평가 개요 및 절차 | 14 |
| [그림 II-4]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부실징후 기업 | 15 |
| [그림 II-5] 부실징후 기업 내 대중소 기업 비중 | 16 |
| [그림 II-6] 국내 한계기업 동향 | 18 |
| [그림 II-7] 업종별 한계기업 동향 | 19 |
| [그림 II-8] 기업 규모별 부채비율 | 20 |
| [그림 II-9] 기업 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 21 |
| [그림 II-10] 기업 규모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 22 |
| [그림 II-11] 기업 규모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 현황 | 23 |
| [그림 III-1] 최근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현황 | 29 |
| [그림 III-2] 자산규모별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현황 | 30 |
| [그림 III-3] 건설업체 수와 외감기업 수 동향 | 31 |
| [그림 III-4] 건설투자와 외감기업 수 동향 | 32 |
| [그림 III-5] 업종별 건설 외감기업 동향 | 33 |
| [그림 III-6] 종합건설업 세부 업종별 외감기업 동향 | 35 |
| [그림 III-7] 전문건설업 세부 업종별 외감기업 동향 | 35 |
| [그림 III-8] 건설업 외감기업 평균 매출액 동향 | 36 |
| [그림 III-9]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평균 매출액 동향 | 37 |
| [그림 III-10]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평균 매출액 동향 | 39 |
| [그림 III-11] 건설업 외감기업 영업이익률 동향 | 41 |
| [그림 III-12]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률 동향 | 42 |

| | |
|-----------------------------------------------------|----|
| [그림 III-13]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률 동향 | 43 |
| [그림 III-14] 건설업 외감기업 업종별 매출액 순이익률 동향 | 44 |
| [그림 III-15]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매출액 순이익률 동향 | 45 |
| [그림 III-16]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매출액 순이익률 동향 | 46 |
| [그림 III-17] 건설업 외감기업 재무구조 및 부채비율 동향 | 47 |
| [그림 III-18] 종합건설업종 외감기업 재무구조 및 부채비율 동향 | 48 |
| [그림 III-19] 종합건설업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재무구조 및 부채비율 동향 | 49 |
| [그림 III-20] 전문건설업종 외감기업 재무구조 및 부채비율 동향 | 50 |
| [그림 III-21] 전문건설업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재무구조 및 부채비율 동향 | 51 |
| [그림 IV-1] 건설업 외감기업 이자보상배율 동향 | 56 |
| [그림 IV-2]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이자보상배율 동향 | 57 |
| [그림 IV-3]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이자보상배율 동향 | 59 |
| [그림 IV-4] 건설업 외감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업체 및 비중 동향 | 61 |
| [그림 IV-5]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업체 동향 | 62 |
| [그림 IV-6]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업체 비중 동향 | 63 |
| [그림 IV-7]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업체 동향 | 64 |
| [그림 IV-8]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업체 비중 동향 | 65 |
| [그림 IV-9] 건설업 외감기업 한계기업 동향 | 67 |
| [그림 IV-10]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한계기업 동향 | 68 |
| [그림 IV-11]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한계기업 동향 | 69 |
| [그림 IV-12] 건설업 외감기업 한계기업 비중 동향 | 70 |
| [그림 IV-13]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동향 | 71 |
| [그림 IV-14]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동향 | 73 |
| [그림 IV-15] 건설업 외감기업 규모별 한계기업 동향 | 76 |
| [그림 IV-16] 건설업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부채비율 비교 | 81 |
| [그림 IV-17] 건설업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이자보상배율 비교 | 82 |
| [그림 IV-18] 건설업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영업이익률 비교 | 83 |
| [그림 IV-19] 건설업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 84 |
| [그림 IV-20] 건설업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ROA 비교 | 8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계기업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실기업을 뜻하며, 산업내의 한계기업 증가는 산업내의 금융자원, 인적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특히 건설산업은 외부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지난 경제위기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과 워크아웃을 경험하였으며, 이어진 연쇄부도로 인해 중소기업과 건설근로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었음
- 따라서 건설업에서 한계기업의 동향 등은 산업의 내실을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설산업 관련 경영관련 지표들은 투입요소, 산출요소와 같은 산업단위의 분석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세부적인 기업단위의 분석은 부족하였음
- 일부 공표되는 지표들 역시 협단체에서 제공하는 합산적인 지표에 의존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건설산업의 경영환경은 파악할 수 있으나, 기업 수준 및 기업 계층별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어 새로운 자료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동향을 기업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해 외감기업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건설업체들의 주요 경영실적 동향을 업종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음

-
- 또한 건설산업의 리스크로 볼 수 있는 한계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건설업의 세부적인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는 두 가지 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건설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경영실적 분석을 실시하여, 건설업의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점과 두 번째는 건설업 내의 한계기업의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여 부실기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것임
 - 외감기업은 외부의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업체의 재무상태를 신뢰할 수 있어 전체산업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업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외감기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들로 건설업 내에서 상위권의 업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유의미한 변화는 건설업 전반적인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음
 - 한계기업의 증가 또는 높은 비중은 산업내의 정상적인 기업들의 경쟁력마저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임
 -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건설업 전체의 한계 기업만을 도출하였을 뿐, 업종별로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규모별 분석을 실시하여 건설업 내에서도 세부적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연구의 범위는 건설업 외감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최근 건설업체 동향을 살펴 보고 한계기업의 동향 그리고 특징을 분석하여 건설업체의 부실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임

- 건설업 내의 한계기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한계기업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 뿐 아니라 매출동향, 재무구조 등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또한 건설업 전체의 한계기업 뿐 아니라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의 세부 업종까지 파악하여 건설업 내부에서도 세부적인 업종까지도 분석을 실시하였음

- 보고서 구성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 및 구성에 대하여 서술함
 - 2장에서는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한계기업의 개념과 국내 전체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였음
 - 3장에서는 건설업의 외감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외감기업 현황과 매출동향, 재무구조 동향을 분석하였음
 -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업 내의 한계기업 현황을 도출하고 한계기업의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특징을 정리하였음
 - 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고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음

| 구분 | | 주요내용 |
|-----|------------------------|-----------------------------------------------------------------------------------------------------------------------|
| 제1장 | 서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 제2장 | 한계기업의 개념 및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기업의 개념 · 한계기업의 국내현황 |
| 제3장 | 건설업 외감기업 경영실적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외감기업 현황 · 건설업 외감기업 매출 동향 · 건설업 외감기업 재무구조 동향 |
| 제4장 | 건설업 한계기업 동향 및 특징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 한계기업 동향 · 건설업 한계기업 특징 · 한계기업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 제5장 | 결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방향 |

[그림 1-1] 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

II

한계기업의 개념 및 국내 현황

1. 한계기업의 개념
2. 한계기업의 국내 현황

1. 한계기업의 개념

1) 한계기업의 개념

- 한계기업의 개념은 외부의 지원 없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워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뜻하며, 최근에는 한계기업이 외부자금에 연명하는 특성을 강조하며 좀비(Zombie)기업이라고도 칭함
 - 한계기업의 일반적인 개념은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뜻하며, 부실기업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됨
 - 외부의 지원이란 대표적으로 재무적인 지원을 뜻하는 데, 주로 은행대출 및 정부정책자금 지원 등의 자금 지원이나, 이자의 절감이나 면제 또는 대출의 연장 등을 들 수 있음
 - 송양호, 정성필(2011)의 연구에서는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도산에 이를 정도로 적자상태에 있거나, 시장점유율 등의 저하 등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기업'이라 정의함
 - 한국개발연구원(2013)이 정의한 좀비기업은 금융지원¹⁾에 의해 퇴출이 지연되고 있는 잠재 부실기업이라고 정의함
 - 이렇게 한계기업은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공통적으로는 정상적으로는 시장에서 퇴출될 위협에 있는 기업으로 이를 극복할 만한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 채 외부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음

1) 정책금융 등 일반적인 조달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금융지원을 받거나 부채에 대한 만기 연장 등의 재무적인 지원

-
- 세부적인 기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실무적이나 연구적인 관점에서는 한계기업을 구분하기 위해 이익과 이자비용의 개념을 도입하여 구분하고 있음

 -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대출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비교하여 이자비용이 더 높으면, 결과적으로 적자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
 - 한국은행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한국은행은 이자보상비율 이 외에도 유동성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3년 연속 음의 값을 가지는 기업, 이익 잉여금의 지속적인 감소로 자본잠식상태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분류함
 - 한국개발연구원은 좀비기업의 현황을 파악할 때 금융지원을 받는 잠재적인 부실기업으로 정의하며, 금융지원에 있어 만기연장과 이자보조를 받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자보상비율 1미만인 기업들을 부실기업으로 구분하였음
 - Bloomberg Intelligence는 레버리지 비율(부채/자본)이 100% 이상이고,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ROE, 당기순이익/평균자기자본X100)이 5% 이하인 기업으로 정의함
 - 중국 우한과기대 금융증권연구소는 비정상손익을 제거한 후 순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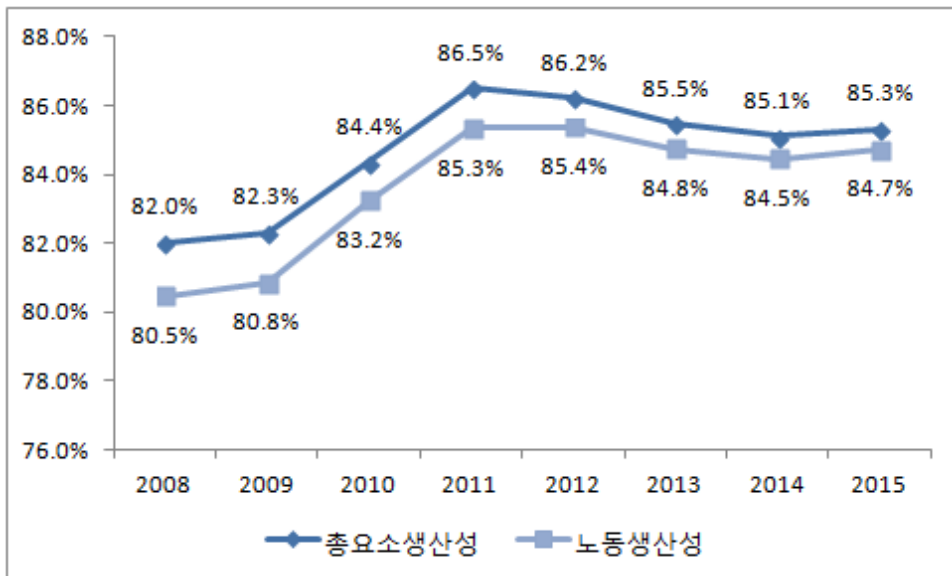
 - 상기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이익(영업이익, 순이익 등) 일정수준 이하로 낮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부채나 부채에 의한 이자가 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을 한계기업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 한계기업의 영향

□ 한계기업은 산업내에 정상적인 기업이 감소하게 만들어 국가재정 낭비 및 시장경제 체계에 부합하는 건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산업의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연구원의 연구(2016)에 따르면 한계기업들은 정상기업과 비교 시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15%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한계기업의 생산성은 노동생산성 기준으로 정상기업의 80.47%, 총요소생산성은 82.0% 수준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2011년까지 생산성 차이가 감소하여, 노동생산성은 85.3%, 총요소생산성은 86.5% 수준으로 감소함
- 그 이후에는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기업과 비교 시 84%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총요소생산성은 85%대를 형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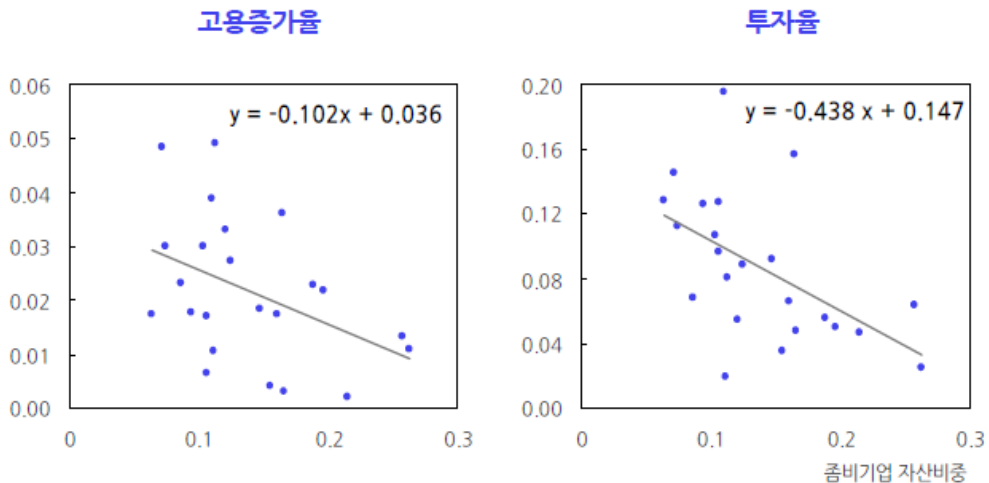


자료: 산업연구원, 2017년, 한계기업 현황과 생산성 분석

[그림 II-1] 한계기업과 정상기업의 생산성 차이

□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2014)에 따르면 금융지원으로 부실기업의 퇴출이 지연 될 경우 좀비기업이 한정된 시장수요를 잠식하고 노동 및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상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하였음

- 산업별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 및 투자율과 해당산업의 좀비기업 자산 비중 간 상관관계를 2010년부터 2013년의 자료(KIS-Data)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좀비기업이 정상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산업 내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과 투자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13년 제조업 업종별 평균 기준

** 투자율은 감가상각 전 유·무형 자산 증가로 인한 현금유출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4년, KDI 경제전망 2014년 하반기

[그림 II-2] 정상기업의 생산활동과 업종내 좀비기업 자산 비중의 상관관계

□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계기업의 증가는 산업의 생산성 저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산업의 종사자 수에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수 감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산업내의 한계기업 비중의 파악은 산업내 기업의 내실과 건전한 성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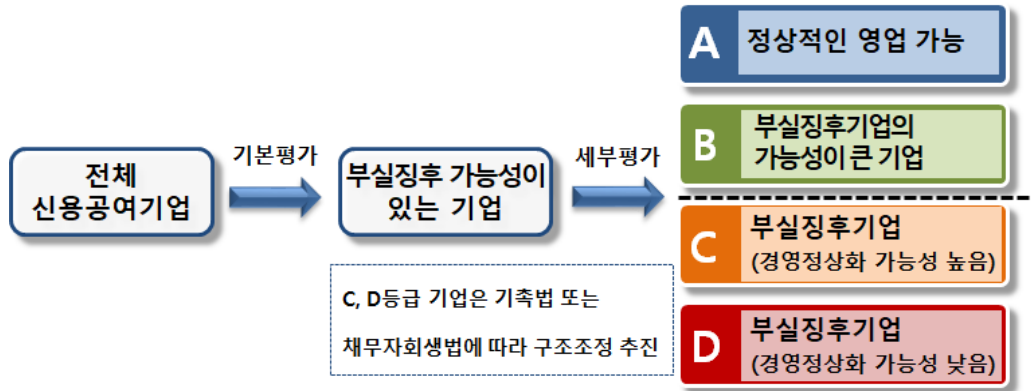
2. 한계기업의 국내 현황

1) 부실징후 기업 현황

- 한계기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부실징후 기업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계기업은 재무지표를 바탕으로 측정하는 반면, 부실기업과 부실징후 기업은 금융기관의 신용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따라 채권은행은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부실징후 기업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을 평가하여 평가등급을 A, B, C, D의 4등급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함
 - A 등급은 정상적인 영업을 가능한 등급을 의미하며, B등급은 외부환경 악화 시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기업, C등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D등급은 부실징후 기업이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으로 구분됨
 - 일반적으로 C등급의 경우는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 D등급은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 등의 대응조치가 필요함

- 한계기업과 부실기업을 신용등급별로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한계기업이 부실기업과 부실징후 기업보다 더 많은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부실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한계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의한 결과를 부여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C등급과 D등급은 한계기업에 포함되고, B등급 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한계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부실(징후)기업은 채권은행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업으로 한계기업 중 경영위기가 당면하였으며,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쉽지 않은 기업으로 볼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2019년 12월, “2019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및 향후 계획”

[그림 II-3] 정기 신용위험 평가 개요 및 절차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210개사를 부실 징후 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0개사가 증가한 수치임
 - 신용등급별로는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는 C등급이 59개,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D 등급이 151개로 선정됨
 - 대기업은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 마무리 등에 따라 부실 징후 기업이 2018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한 이후 전년도와 유사한 9개 업체가 선정됨(C등급 2개 감소, D 등급 1개 증가)
 - 반면, 중소기업은 C등급 기업은 8개사 증가, D등급 기업이 13개사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 부실(징후)기업이 21개사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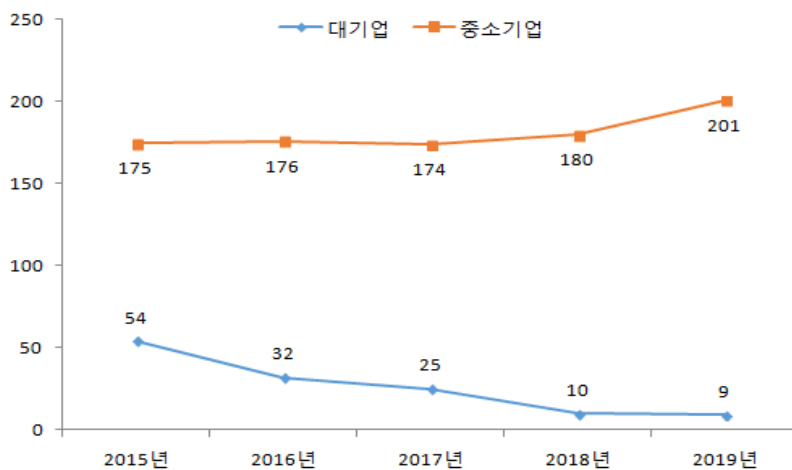
〈표 II-1〉 부실징후 기업 수 추이

(단위: 개사)

| 구분 | 항목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증감 |
|----------|------|-------|-------|-------|-------|-------|------|
| 세부평가 대상* | 대기업 | 2,874 | 2,637 | 2,906 | 2,952 | 3,307 | +355 |
| | 중소기업 | 940* | 602 | 631 | 631 | 599 | △32 |
| 부실 징후기업 | 합계 | 1,934 | 2,035 | 2,275 | 2,321 | 2,708 | +387 |
| | C등급 | 229 | 208 | 199 | 190 | 210 | +20 |
| | | D등급 | 97 | 84 | 74 | 53 | 59 |
| | 대기업 | 132 | 124 | 125 | 137 | 151 | +14 |
| | | C등급 | 54* | 32 | 25 | 10 | 9 |
| | D등급 | 27 | 13 | 13 | 5 | 3 | △2 |
| | 중소기업 | 27 | 19 | 12 | 5 | 6 | +1 |
| | | C등급 | 175 | 176 | 174 | 180 | 201 |
| | D등급 | 70 | 71 | 61 | 48 | 56 |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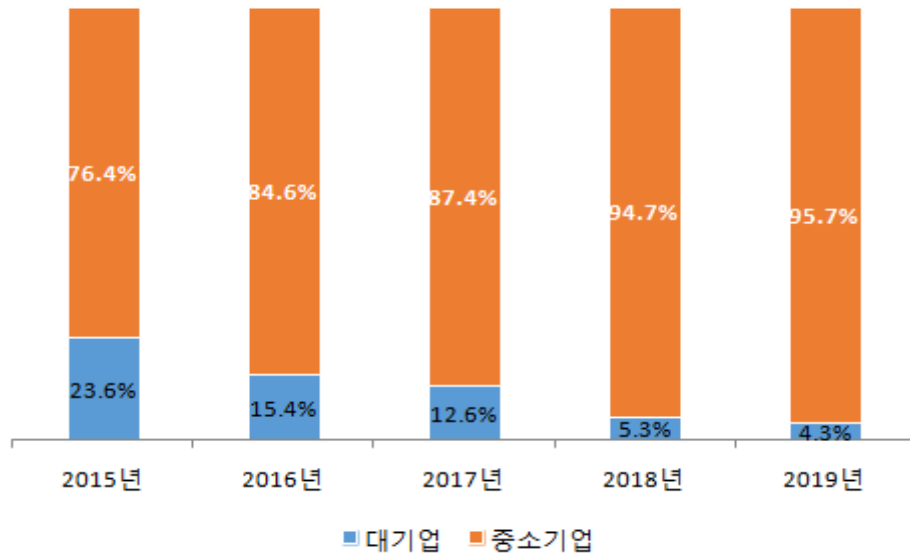
* 대기업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업체(수시평가대상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2019년 12월, "2019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및 향후 계획"

□ 2015년 이후 대기업은 부실징후 기업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은 중소기업의 부실징후 기업이 크게 증가함



자료: 금융감독원, 2019년 12월, "2019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및 향후 계획"

[그림 II-4] 대기업 및 중소기업 부실징후 기업



자료: 금융감독원, 2019년 12월, "2019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및 향후 계획"

[그림 II-5] 부실징후 기업 내 대중소 기업 비중

□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 및 장비제조업(+15)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하였고 부동산(+5), 자동차부품(+3), 건설(+3) 및 전자(+1) 등의 업종도 소폭 증가하였음, 조선(△7), 금속가공(△5), 철강(△5), 도매/상품중개(△4) 업종은 전년 대비 감소함

<표 II-2> 주요 업종별 부실징후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 기계 장비 | 부동산 | 자동차 부품 | 금속 가공 | 도매· 상품중개 | 전자 | 고무· 플라스틱 | 철강 | 건설 | 조선 |
|------|----------|-----|-----------|----------|-------------|----|-------------|----|----|----|
| '19년 | 35 | 19 | 17 | 17 | 14 | 12 | 10 | 8 | 6 | 3 |
| 대기업 | 1 | 1 | 1 | - | - | 2 | - | - | 3 | - |
| 중소기업 | 34 | 18 | 16 | 17 | 14 | 10 | 10 | 8 | 3 | 3 |
| '18년 | 20 | 14 | 14 | 22 | 18 | 11 | 10 | 13 | 3 | 10 |
| 대기업 | 3 | - | 1 | 1 | 2 | 1 | - | 1 | - | 1 |
| 중소기업 | 17 | 14 | 13 | 21 | 16 | 10 | 10 | 12 | 3 | 9 |
| 증감 | +15 | +5 | +3 | △5 | △4 | +1 | - | △5 | +3 | △7 |

* 대기업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업체(수시평가대상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2019년 12월, "2019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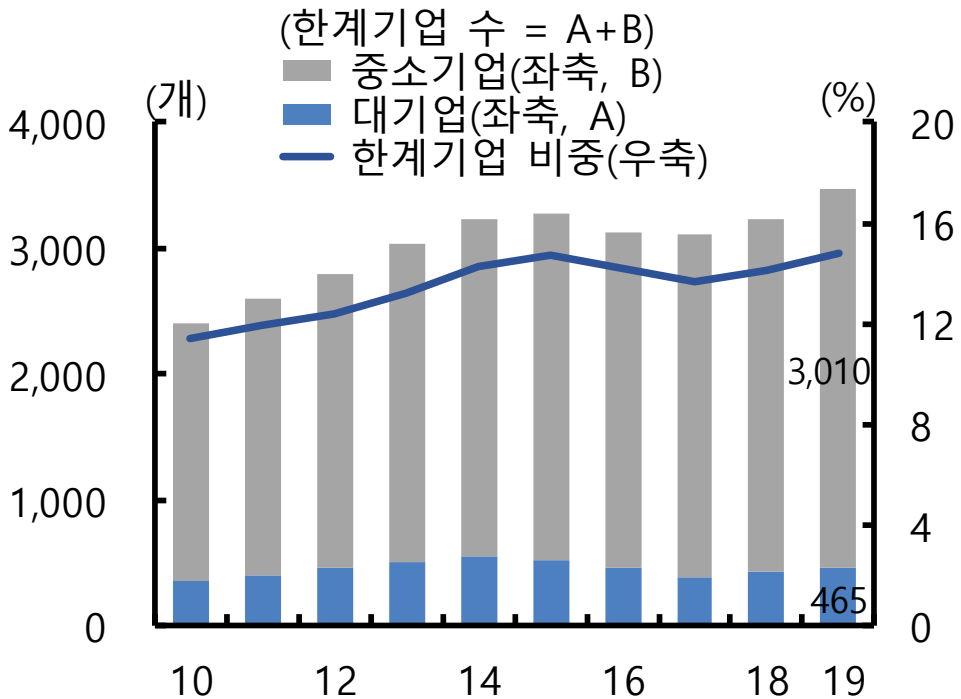
-
- 2019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대기업의 부실징후는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부실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부동산, 자동차 부품, 건설 등 업종의 부실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기업의 부실징후 기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종의 부실징후 기업은 대기업에서 증가하였다는 점이 특이함
 - 전자 업종을 제외한 타 업종에서는 부실 징후 대기업이 감소 또는 변화가 없었던 반면, 건설업종은 2018년 기준 부실징후 기업이 없었으나, 3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타 업종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 한계기업 현황

□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의 한계기업은 2019년 3,475개로 전년대비 7.4% 증가하였으며, 2010년 이래로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한국은행의 2020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도자료에서 외부감사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계기업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였음
- 2019년의 한계기업은 3,475개로, 전년도인 2018년의 3,236개에 비하여 7.4% 증가함
- 분석에서 활용한 외감기업 대상은 2019년 기준 23,494개 사로 외부감사기업의 비중은 14.8%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인 14.2%에 비해 0.6%p 증가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2020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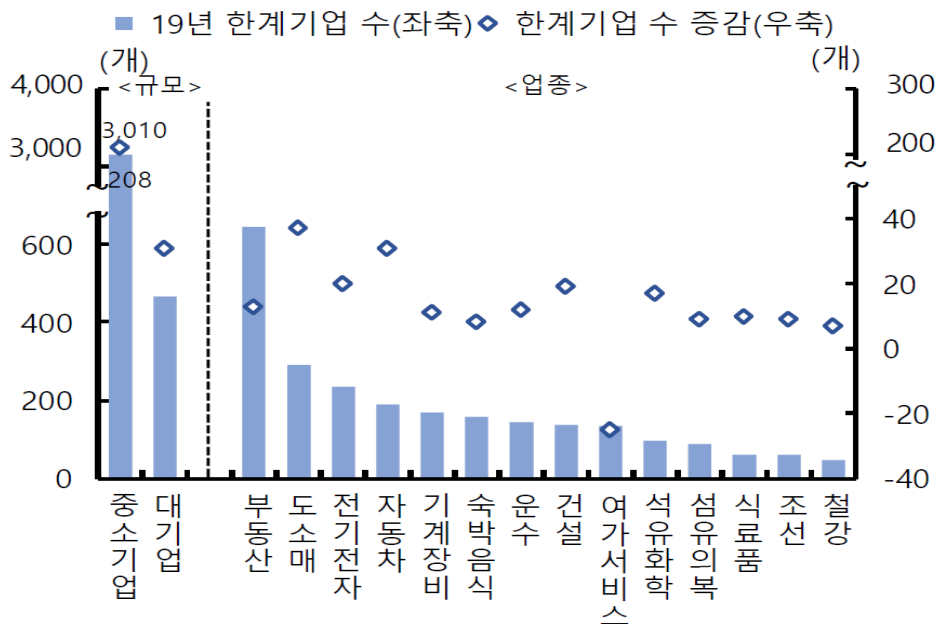
[그림 11-6] 국내 한계기업 동향

□ 기업규모별로 봤을 때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이 한계기업 증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한계기업은 465개사이며, 중소기업의 3,010개사로 나타남
- 대기업은 전년인 2018년에 434개사에서 31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은 전년도 2,802개사에서 208개사가 증가하였음
- 비율로 살펴보면 한계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6.6%로 나타남

□ 업종별로 봤을 때는 부동산 업종에서 한계기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경우 도소매, 자동차, 전기전자, 건설업종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높은 부채비율과 수익실현의 주기가 큰 부동산 업종은 대표적으로 한계기업이 높은 업종임
- 전년도와 비교하여 가장 한계기업이 가장 많이 증가한 4개 업종은 도소매(+37개), 자동차(+31개), 전기전자(+20개), 건설(+19개)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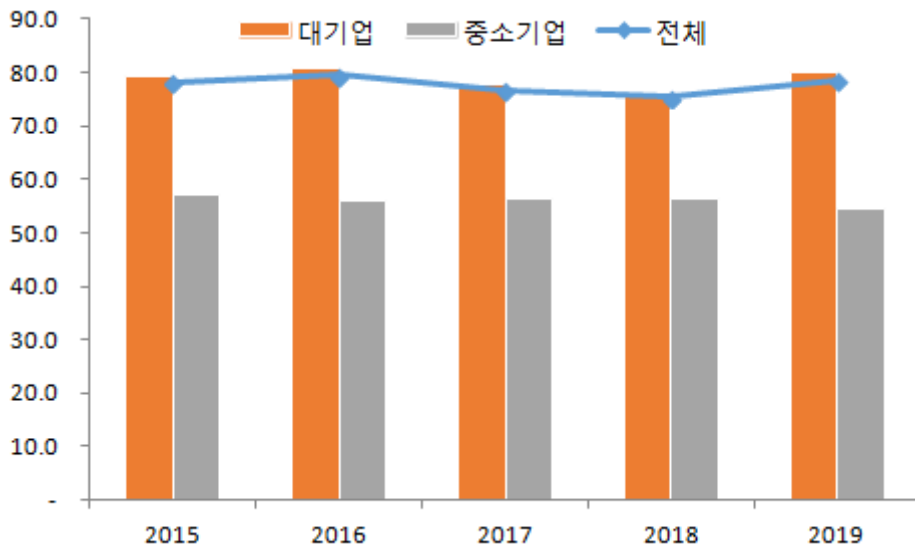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20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도자료

[그림 II-기] 업종별 한계기업 동향

□ 이렇게 국내의 한계기업이 증가한 이유로는 부채비율의 상승과 수익성 악화를 들 수 있음

- 2017년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던 기업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은 2019년에 전년대비 3.2%p 상승하여 78.5%로 증가하였음
-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3.5%p 상승한 79.8%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1.8%p 하락한 54.6%를 기록하여 대기업 중심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음
- 이렇게 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한 반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도 7.8%에서 3.4%p 하락한 4.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3.6%가 하락한 수치임
- 기업규모별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 2018년 7.9%에서 3.4%p 하락한 4.5%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2018년 3.6%에서 1.0%p 하락한 2.6%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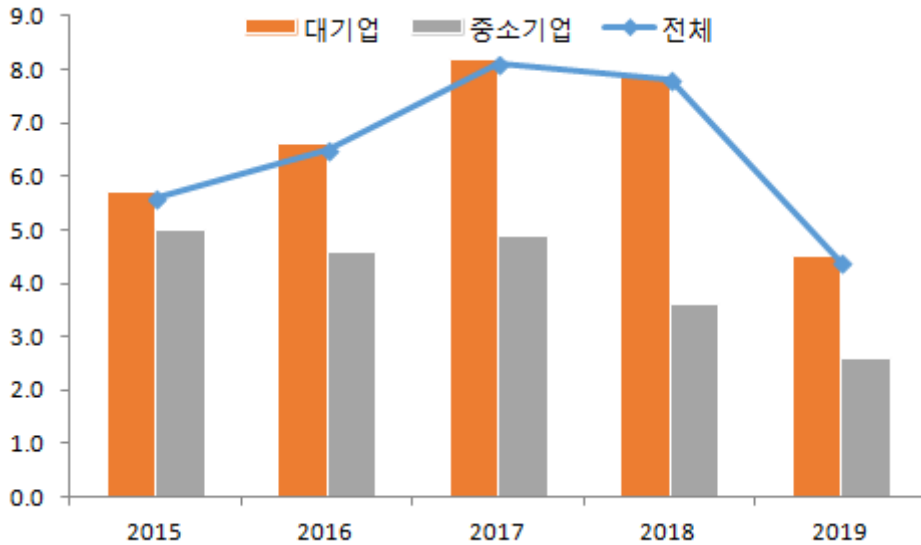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은행, 2020년 6월, “금융안정 보고서”

[그림 II-8] 기업 규모별 부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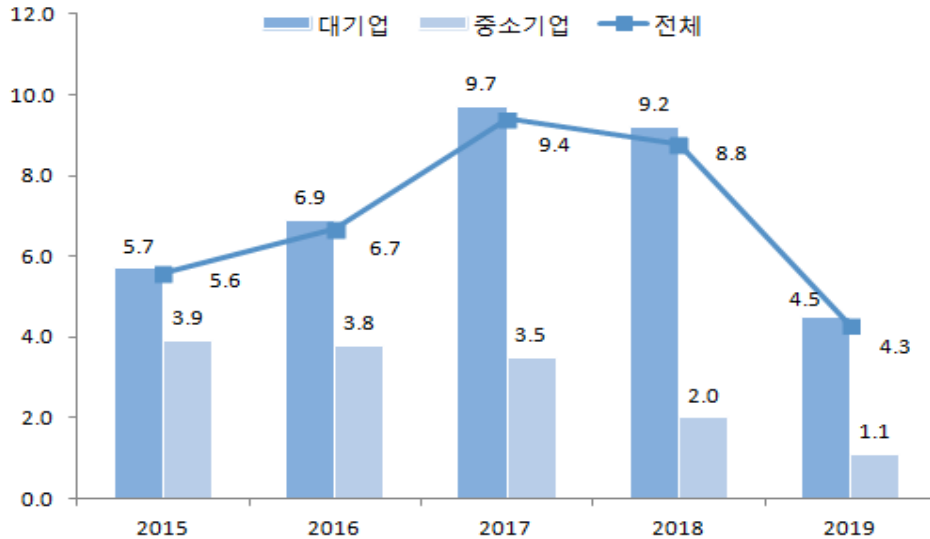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2020년 6월, “금융안정 보고서”

[그림 II-9] 기업 규모별 매출액 영업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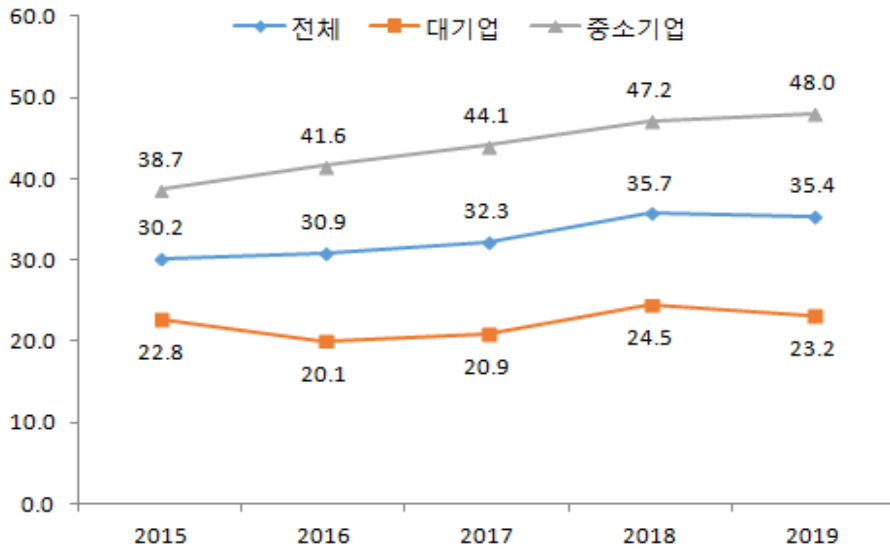
- 이러한 기업의 부채증가와 수익률 악화는 결과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을 낮아지게 만들었으며, 한계기업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내 외감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4.3배로 전년도인 8.8배에서 4.5가 감소하였으며, 비율로는 51.1%가 감소한 수치임
 - 대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8년도 9.2배에서 4.7이 감소한 4.5배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8년도 2.0배에서 0.9가 감소한 1.1배로 나타났음
- 대기업 이자보상배율의 큰 폭의 하락도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 평균 1.1로 감소한 것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부실 또는 부실위기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2020년 6월, “금융안정 보고서”

[그림 II-10] 기업 규모별 이자보상배율 현황

- 한계기업을 산출할 때 활용하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의 비중은 전체 기업 중 35.4%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체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의 비중은 35.4%로 전년도인 35.7%에 비해 0.2%p로 소폭 감소하였음
 - 이러한 감소는 대기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기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의 비중은 23.2%로 전년도인 24.5%에서 1.3%p 감소한 수치임
 - 그러나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는 2015년 38.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2019년에도 지속되어 48.0%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자료: 금융감독원, 2020년 6월, “금융안정 보고서”

[그림 II-11] 기업 규모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 현황

- 국내의 한계기업은 2019년에 들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우려되는 상황은 2019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수치이기 때문에 2020년 이후의 한계기업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영소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을 알 수 있음

III

건설업 외감기업 경영실적 분석

1. 건설업 외감기업 현황
2. 건설업 외감기업 매출 동향
3. 건설업 외감기업 재무구조 동향
4. 건설업 외감기업 경영실적 분석결과 요약

1. 건설업 외감기업 현황

- 건설업의 한계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재무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은 재무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외감기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에서는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해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유한회사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음
- 외감법에서 비상장 법인의 재무기준을 살펴보면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이거나 다음의 조건 중 3개 이상 해당하지 않는 회사인 경우 즉 2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됨
 - ①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 ②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 ③ 매출액 100억원 미만
 - ④ 종업원 100명 미만(파견 근로자 등 제외)
- 외감법은 개정을 거듭하며, 지정사유가 추가 되고 있어 국내의 외감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0년 10월 시행)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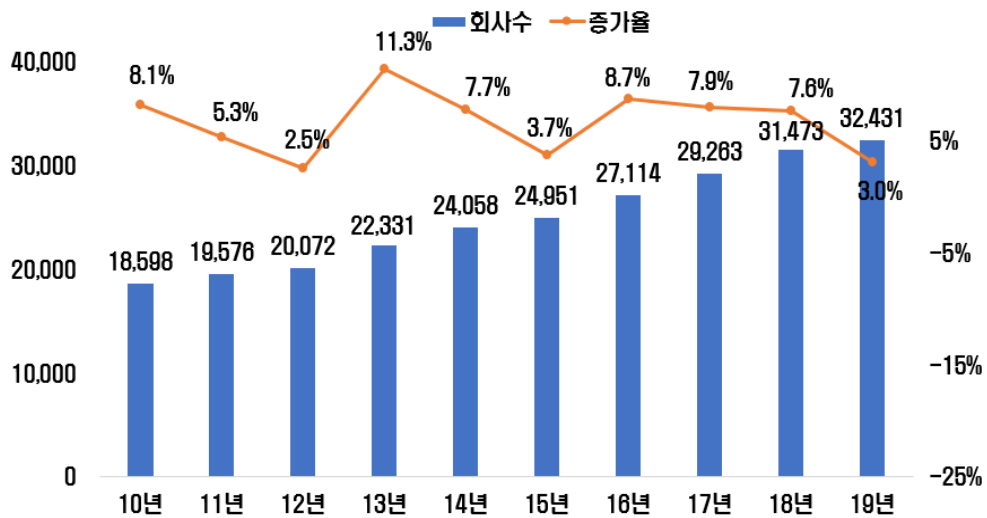
① 법 제4조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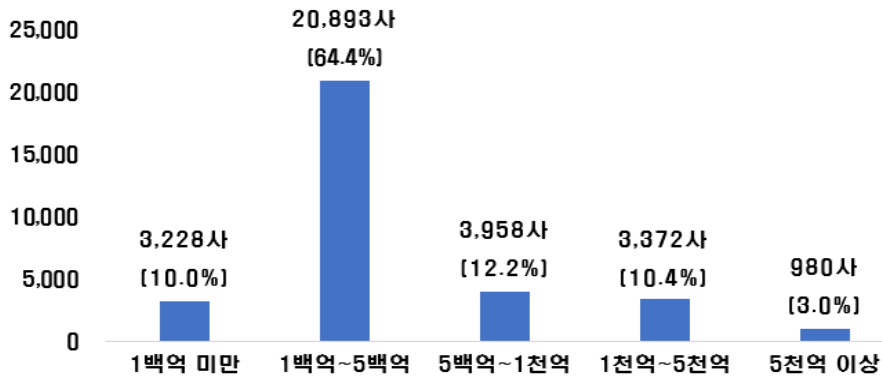
- 19년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2,431사로 전년(31,473사) 대비 958사(3.0%) 증가하였으나 유동화전문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 확대로 증가율은 하락하였음
 -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6.6%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다만 2012년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5년은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100억원 → 120억원)으로 증가율이 소폭 감소하였음
 - 또한 2020년부터는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가 확장되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임



자료: 2019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금융감독원, 2020년

[그림 Ⅲ-1] 최근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현황

- 기업규모별로 봤을 때는 5백억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3/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적게 분포하고 있음
 -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0,893사(64.4%),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3,958사(12.2%), 1,000억원이상~5,000억원미만 3,372사(10.4%)로 나타남



자료: 2019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금융감독원, 2020년

[그림 III-2] 자산규모별 외부감사 대상 회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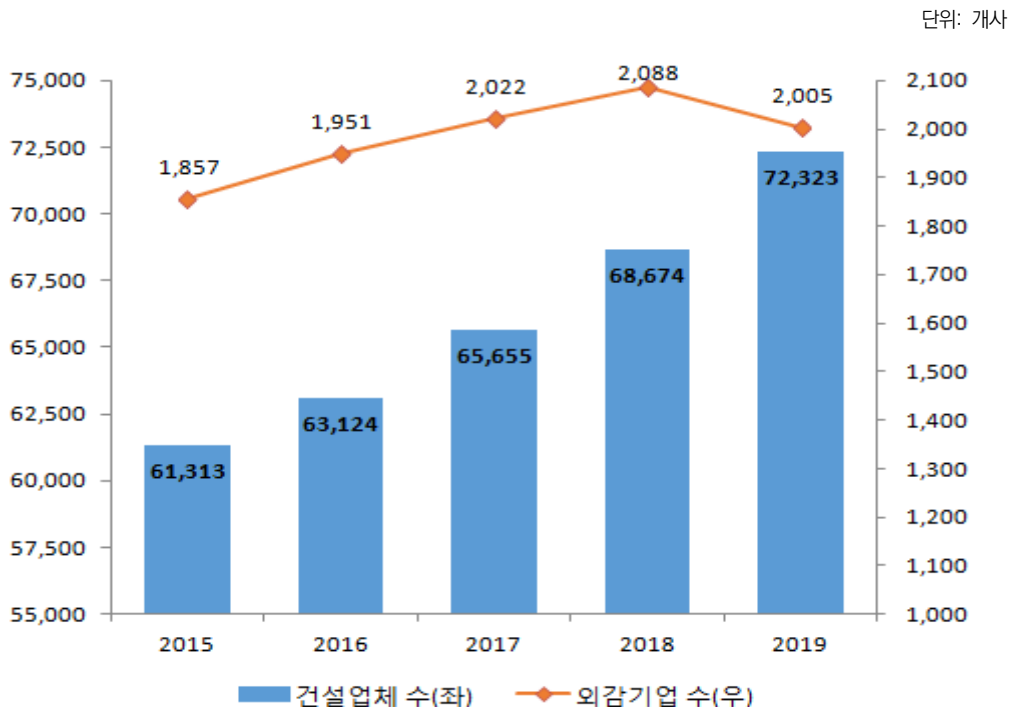
□ 건설업의 외감기업을 분석하기 위해 Nice신용평가에서 운영 중인 KIS-Value를 활용하였으며²⁾, 한계기업 선정을 위해서 3년 연속의 재무자료가 필요한 관계로 2017년에 개정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가 아닌 제9차 산업분류체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은 2017년 7월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반영된 연도는 2018년 ~ 2019년 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 없음
- 이번 분석에서는 2015년~2019년의 5개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 건설업은 표준산업 분류체계 중 F그룹에 속하며, 표준산업코드 5자리 중 앞자리 41~42의 하위 산업으로 구분됨
- 산업코드 (F)41은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며, 411은 건물건설업, 412는 토목건설업으로 구분되며, 하위 건설업 체계를 지니고 있음
- 산업코드(F)42는 전문직별 공사업으로 최근 개정된 내용이 아닌 9차 분류체계에 따르면 421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공사업, 422는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423은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4는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 425는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구분됨

2) 2020년 6월말 기준으로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자료가 갱신되기 때문에 추후 시점에 따라 데이터의 변동가능성 있음

- KIS-Value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건설업의 외감기업은 총 2,005개사로 4년 전인 2015년 1,857개사에서 148개사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인 2018년에 비하면 53개사가 감소하였음
 - 건설업의 외감기업은 4년 동안 12.9%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3.3%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외감기업 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1,876개사로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 대비로는 83개 업체가 감소하였으며, 비율로는 전년대비 4%가 감소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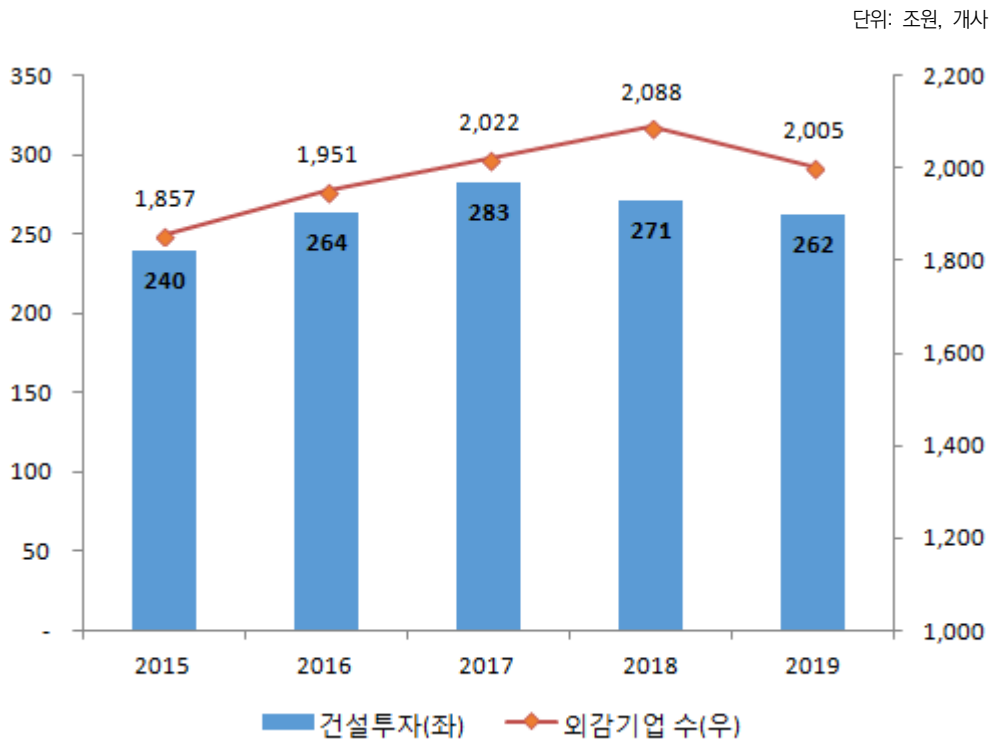
□ 전 산업의 외감기업은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증가 역시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분야의 외감기업이 감소한 현상은 이례적인 일이라 볼 수 있음



* 대한건설협회의 주요건설통계의 건설업체 수 인용이며, 전기/통신업체는 제외한 수치임
 자료: KIS-Value,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그림 Ⅲ-3] 건설업체 수와 외감기업 수 동향

- 건설업체는 2015년 61,313개사에서 2019년 72,323개사로 5년 동안 18.0%가 상승한 반면, 외감기업은 1,857개사에서 2019년 2,005개사로 8% 증가하였음
- 건설업 외감기업이 건설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인 전체 기업의 3% 수준이었으나 2019년 2.8%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함
- 이러한 외감기업의 업체 수의 감소는 중견급의 기업들이 외부감사 기준 대상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정되는데, 최근 감소한 건설투자 감소 등도 복합적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 건설투자는 2017년 283조원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외감기업은 2018년 2,088개사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음, 건설투자와 건설업체 실적의 시차영향을 2018년의 건설투자 감소세가 2019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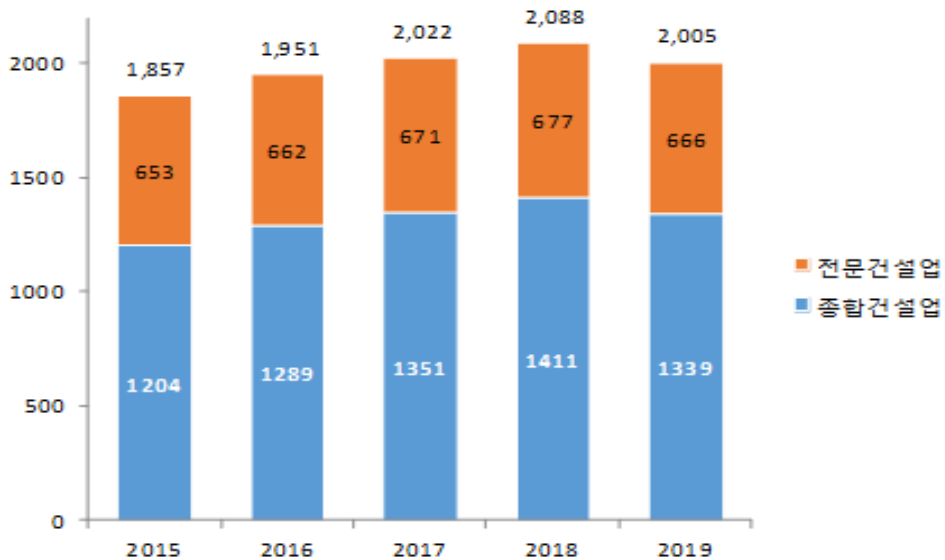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III-4] 건설투자와 외감기업 수 동향

- 건설외감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종의 외감기업이 전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준이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들어 감소하였음
 - 2019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외감기업은 1,339개사로 전체 2,005개사의 66.8%를 차지하고 있음
 - 종합건설업종은 2015년 1,204개사에서 2019년에 1,339개사로 135개사가 증가하며, 11.2%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나 2018년과 비교하면 5.1% 72개사가 감소하였음
 - 반면 전문건설업종은 2015년 653개사에서 2019년 666개사로 2.0%인 13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전년인 2018년에 비해 1.6%인 11개사가 감소하였음
 - 외감기업내 종합 및 전문건설업종의 분포는 종합건설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종의 업체수 변동폭이 큰 반면, 전문건설업종 업체 수의 변동은 크지 않음

단위: 억원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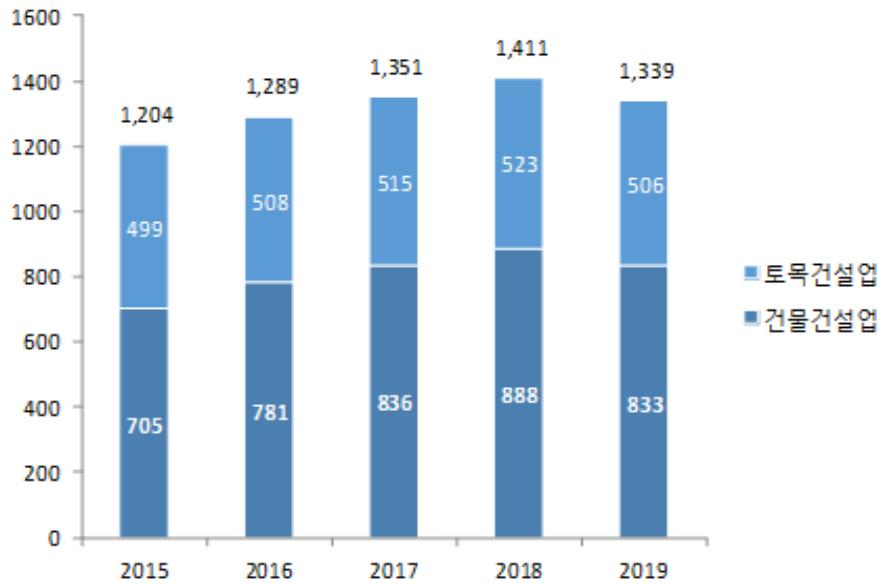
[그림 III-5] 업종별 건설 외감기업 동향

- 한편 기업규모별로 건설업 외감기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전체 외감기업의 8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외감기업 수는 308개사로 2018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과 비교 시 14개의 업체가 증가하였음
 - 외감기업 중 중소기업은 1,697개 업체로 2015년에 비하면 134개사가 증가하며, 5년간 8.6%의 성장세를 보여주었으나, 2018년에 비하면 83개 업체가 감소하였음
 - 기업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의 업체 수의 변동폭은 작은 반면, 중소 외감기업의 업체 수 변동폭은 크게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봤을 때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설업보다 건물건설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변동폭도 크게 나타남
 - 종합건설종의 세부 업종인 토목공사업과 건물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토목건설업체수는 506개사, 건물건설업은 833개사로 나타나 건물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2.6%로 더 높았음
 - 건물건설업은 2015년과 비교하면, 128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5년간 18.2%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와 비교 시 55개 업체가 감소하였음
 - 토목건설업은 2015년도와 비교 시 7개 업체가 증가하여, 5년간 1.4%가 증가한 수준이며, 2018년도 비교 시 17개 업체가 감소하였음
 - 따라서 종합건설업의 외감기업은 건물건설업의 비중과 변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9년의 감소세도 더 큰 것을 알 수 있음

- 전문건설업종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공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기 및 통신업체만이 5년 전과 비교 시 소폭 증가하였음
 - 전문건설업종의 외감기업은 총 666개 업체로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공사업이 25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과 전기통신공사업이 각각 137개사로 나타남
 - 2015년과 비교 시 대부분의 업종은 변화가 없거나, 1% 내외의 변동이 있었던 반면, 전기 및 통신공사업종만이 2015년 대비 7.0%인 9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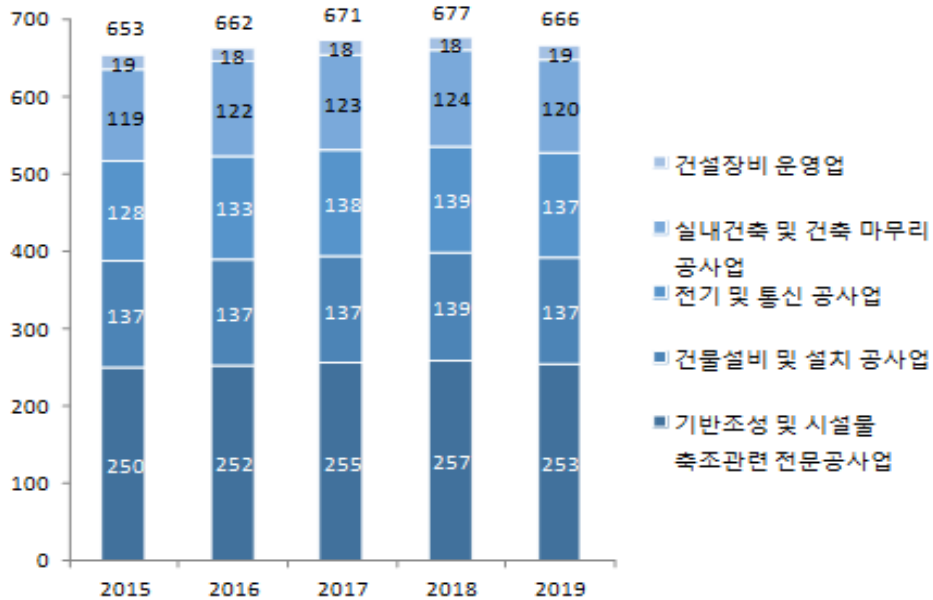
단위: 억원



자료: KIS-Value

[그림 III-6] 종합건설업 세부 업종별 외감기업 동향

단위: 억원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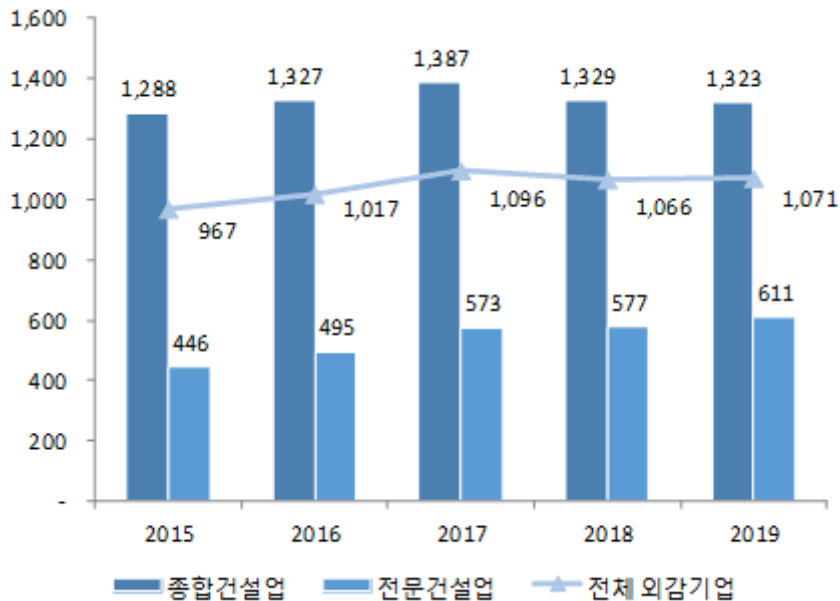
[그림 III-7] 전문건설업 세부 업종별 외감기업 동향

2. 건설업 외감기업 매출 동향

1) 평균매출액 동향

- 건설업 외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9년 기준 1,071억원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1,323억원으로 전년대비 -0.5% 하락한 가운데 전문공사업이 611억원으로 전년대비 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건설업종이 전문건설업종보다 2배가 넘는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2017년 1,457억원으로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반면 전문건설업종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018년 증가세가 소폭 완화되었음

단위: 억원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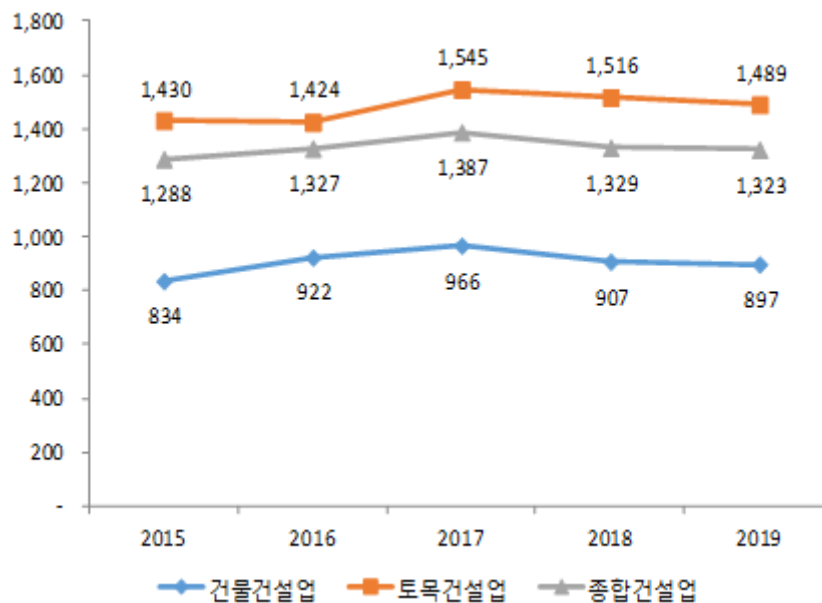
[그림 III-8] 건설업 외감기업 평균 매출액 동향

- 종합건설업 전체의 평균매출액 동향은 2017년까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부 업종으로 살펴보면,

토목건설업의 매출액이 더 큰 규모를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토목건설업종의 매출액은 2015년 1,430억원에서 2017년 1,545억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9년 1,48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과 비교 시 27.1억원(1.8%)이 감소한 수치임
- 건물건설업종은 2015년 834억원에서 2019년 897억원으로 5년간 7.5%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이며, 토목건설업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대비로는 9.6억원(1.1%) 하락하였음
- 대형 건설사의 경우 토목과 건물건설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명확하게 업종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인 변동폭을 살펴보면, 토목업종보다는 건물건설업종의 2017년까지의 성장폭이 더 컸으며, 이후의 하락폭도 더 컸음
- 2017년 고점대비 토목건설업의 하락폭은 3.6%인 반면에 건물건설업의 하락폭은 7.2%로 두 배에 달하고 있음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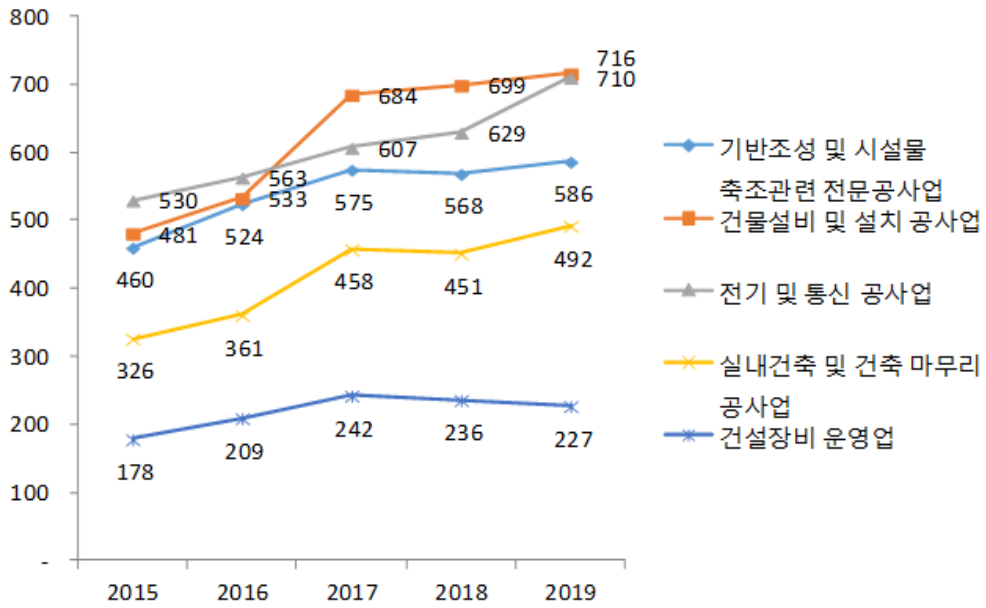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II-9]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평균 매출액 동향

-
- 전문건설업은 한계기업 업체수의 변동이 적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매출액의 상승폭을 기록하였으나, 세부업종에 따라 차이는 존재하였음
- 전문건설업 외감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물설비 설치공사업(716억원), 전기 및 통신공사업(710억원),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공사업(586억원),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492억원), 건설장비 운영업(227억원)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건설업종 전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7.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로는 8.2%의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 세부 업종 중에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은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으로 2014년 326억에서 2019년 492억으로 166억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성장률로는 10.8%를 기록함
 - 다음으로 성장세가 높았던 것은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으로 2015년 481억에서 2019년 716억으로 17억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로는 10.4%가 증가함
 -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2015년 530억에서 2019년 710억으로 71억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로는 7.6%가 증가하며, 전문직 공사업 성장률(8.2%)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
 - 반면 기반조성 및 시설물 업종 및 건설장비 운영업은 전문건설업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연평균 성장률인 6.3%를 기록하였으며, 건설장비 운영업은 6.2%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 성장률이 하락한 업종이기도 함

단위: 억원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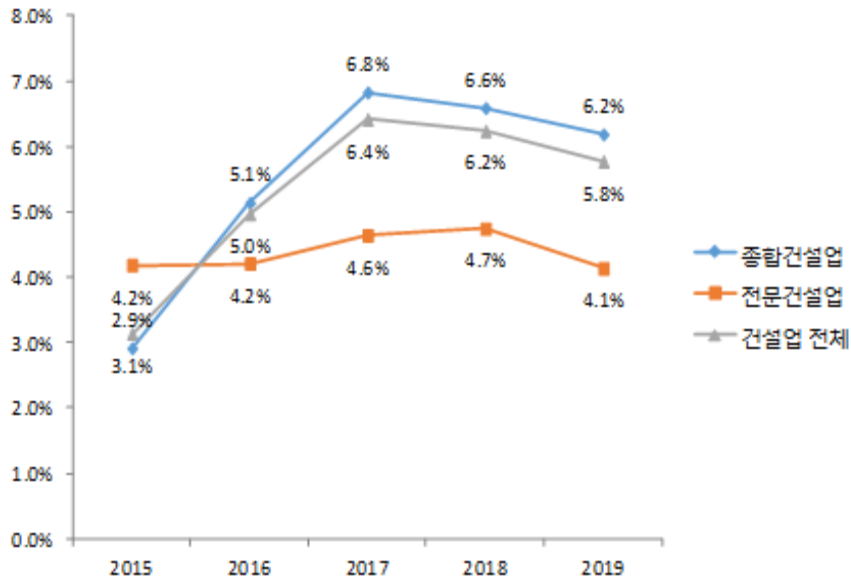
[그림 Ⅲ-10]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평균 매출액 동향

2) 영업이익률 동향

- 영업이익률 또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나타낸 것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자비용이나, 특별 이익 등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활동 실적에 대한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임
 - 기업의 순이익에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영업외 이익과 부채에 대한 비용인 영업외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영업활동 고유의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에 대한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이익/매출액×100의 산식으로 도출함

- 건설업 외감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기준으로 5.8%이며, 종합건설업종의 영업이익률이 전문건설업종의 이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변동폭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 전체 외감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3.1%에서 2017년까지 증가하여 6.4%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는 5.8%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종합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2.9%에서 2017년까지 6.8%까지 2배 이상 개선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6.2% 수준으로 하락함
 - 전문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4.2%에서 2018년까지 소폭으로 증가하여 4.7%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는 4.1%로 하락하며,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함
 - 이와 같이 종합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전문건설업의 영업이익률보다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전문건설업종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
 - 반면 전문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4%대에서 소폭으로 변동하며, 일정규모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공통적인 부분은 2019년에 이르러 종합건설업(△0.4%P)과 전문건설업(△0.6%P)의 영업이익률이 모두 하락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하락폭은 전문건설이 조금 더 높은 편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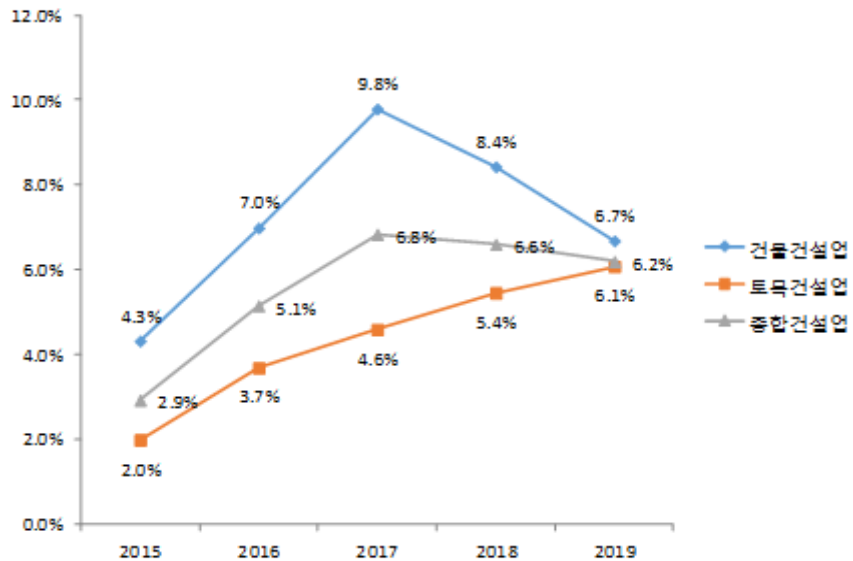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Ⅲ-11] 건설업 외감기업 영업이익률 동향

- 종합건설업 외감기업의 세부업종별 실적을 보면, 건물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가운데 변동폭이 큰 가운데, 토목공사업의 영업이익률을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 건물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기준으로 6.7%로 2015년인 4.3%에 비하면 2.3%p 개선된 수치이나 2017년 고점인 9.8%에서는 3.1%p 하락한 수치임
 - 토목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기준으로 건물건설업보다 낮은 6.1%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인 2.0%에 비하면 4.1%p 개선된 수치로 해마다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 건물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토목건설업보다 높았으나 변동폭이 큰 가운데 2017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토목건설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며 유사한 영업이익률인 6%대로 수렴하였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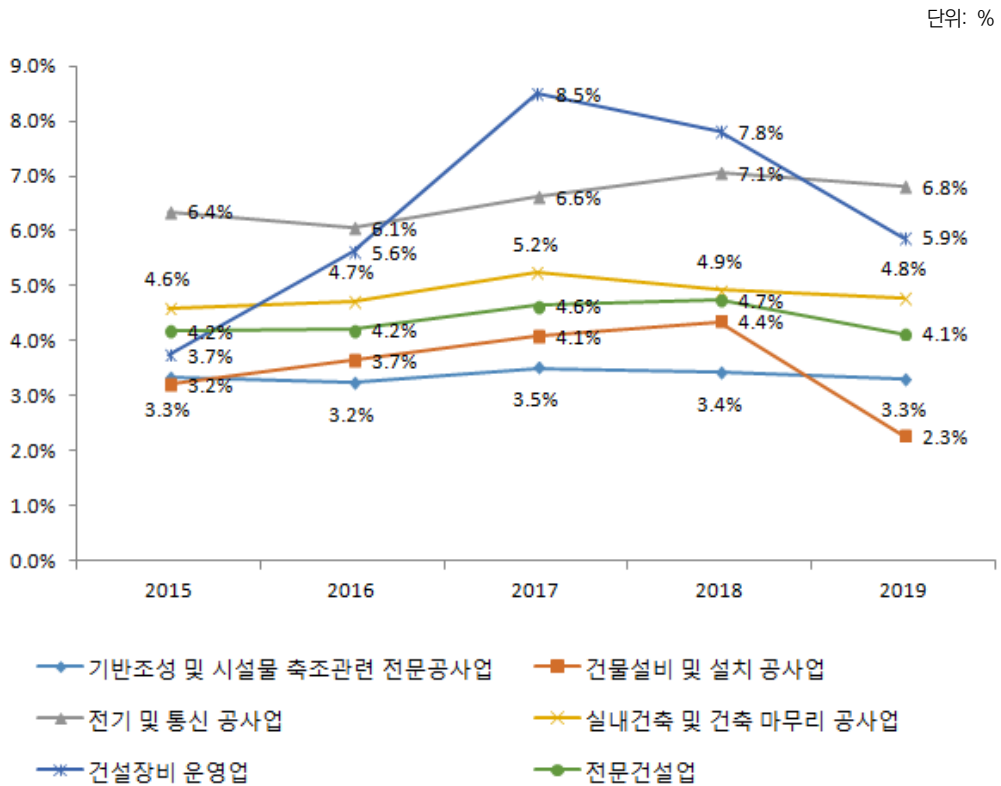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II-12]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률 동향

- 전문건설업종의 세부 업종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전문건설업종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건설장비 운영업의 변동폭이 컸으며,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과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업종이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 전문건설업종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4.2%에서 2019년 4.1%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세부업종을 봤을 때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공사업 역시 연간 3.3% 수준을 유지하며, 변동이 가장 적은 업종이며, 2019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함
 - 실내건축 및 건축공사마무리 공사업은 2017년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하락세로 전환하여, 전문건설업종 평균보다 조금 높은 4.8%를 기록함
 -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은 2018년까지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여 4.4%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하며 2.3%를 기록하며 세부 업종 중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함
 - 전기 및 통신 공사업은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세부 업종 중 하나로 5년간 6%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7.1%, 2019년에는 6.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함

- 건설장비 운영업은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이 가장 큰 세부 업종으로 2017년 8.5%로 세부 업종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여 2019년에는 5.9%로 나타남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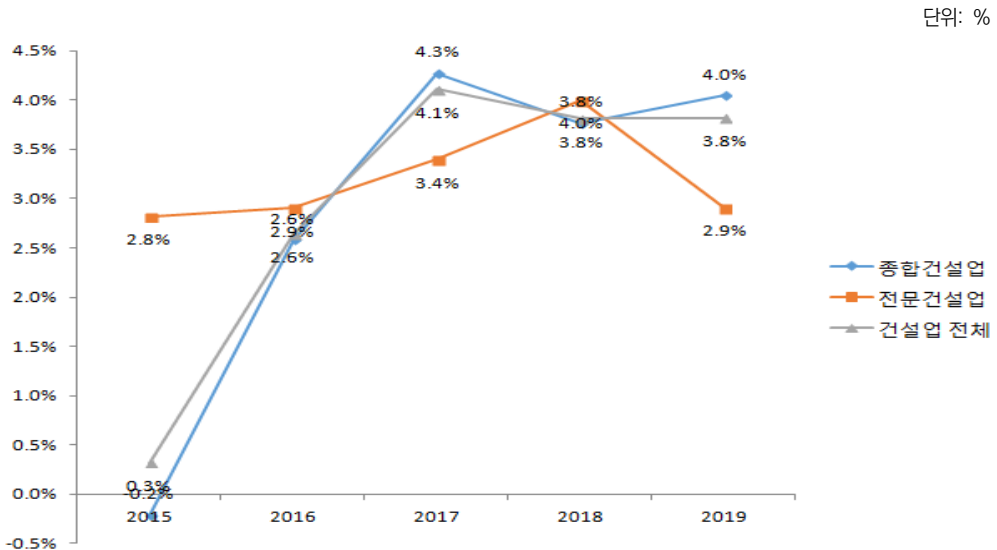
[그림 III-13]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영업이익률 동향

3) 매출액순이익률 동향

□ 매출액 순이익률(이하 순이익률)은 매출액과 순이익률의 관계를 표시해 주는 비율로 기업 활동의 최종 수익성을 판단하는 비율이며, 영업외 수익과 비용, 그리고 법인세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건설업 외감기업의 순이익률은 2019년 기준 3.8%로 종합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전문건설업종보다 높은 편이며, 변동성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 외감기업의 2019년 순이익률은 2019년 3.8%로 2015년의 0.2%에서 2017년 4.1%로 증가하였으나 하락세로 전환하며 3.8%로 나타남
- 종합건설업종의 순이익률은 변동성이 큰 편인데 2015년 -0.2%에서 2017년 4.3%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2018년 3.8%, 2019년은 4.0%로 나타남
- 전문건설업종의 순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편인데 2015년 2.8%를 기록하던 순이익률은 2018년 4.0%로 개선되었으나, 2019년은 2.9%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건설경기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순이익률이 크게 변동하는 가운데 전문건설업종은 일정수준의 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높은 순이익률을 기록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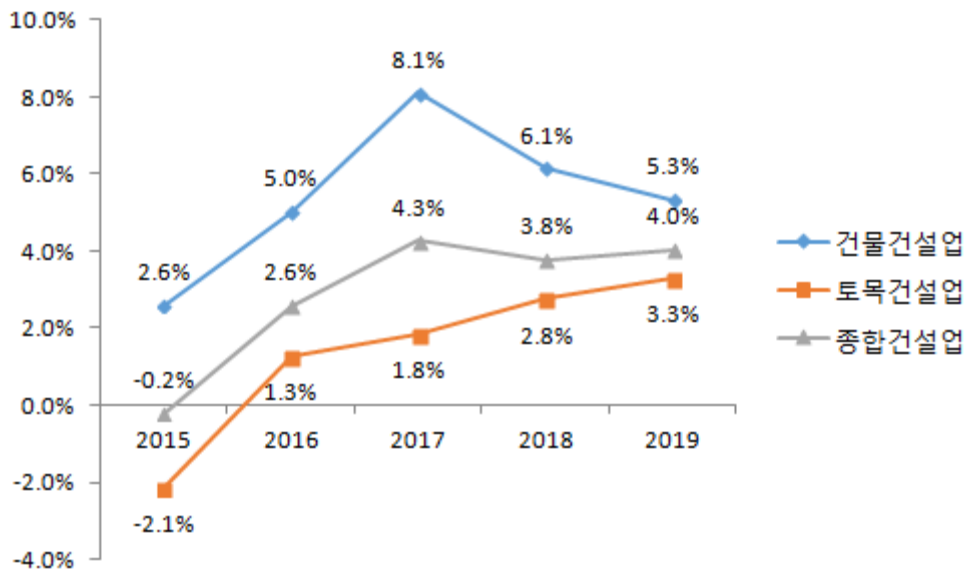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II-14] 건설업 외감기업 업종별 매출액 순이익률 동향

□ 종합건설업의 순이익률을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물건설업의 수익률이 더 높은 가운데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토목건설업은 수익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건물건설업종의 순이익률은 2015년 2.6%에서 2017년 8.1%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며, 2019년에는 5.3%의 순이익률로 하락함
- 토목건설업종의 순이익률은 2015년 -2.1%였으나, 2016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는 3.3%로 나타남
- 토목건설업종은 불황기를 지나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반면, 건물건설업인 2017년의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은 토목건설업종 보다는 높은 순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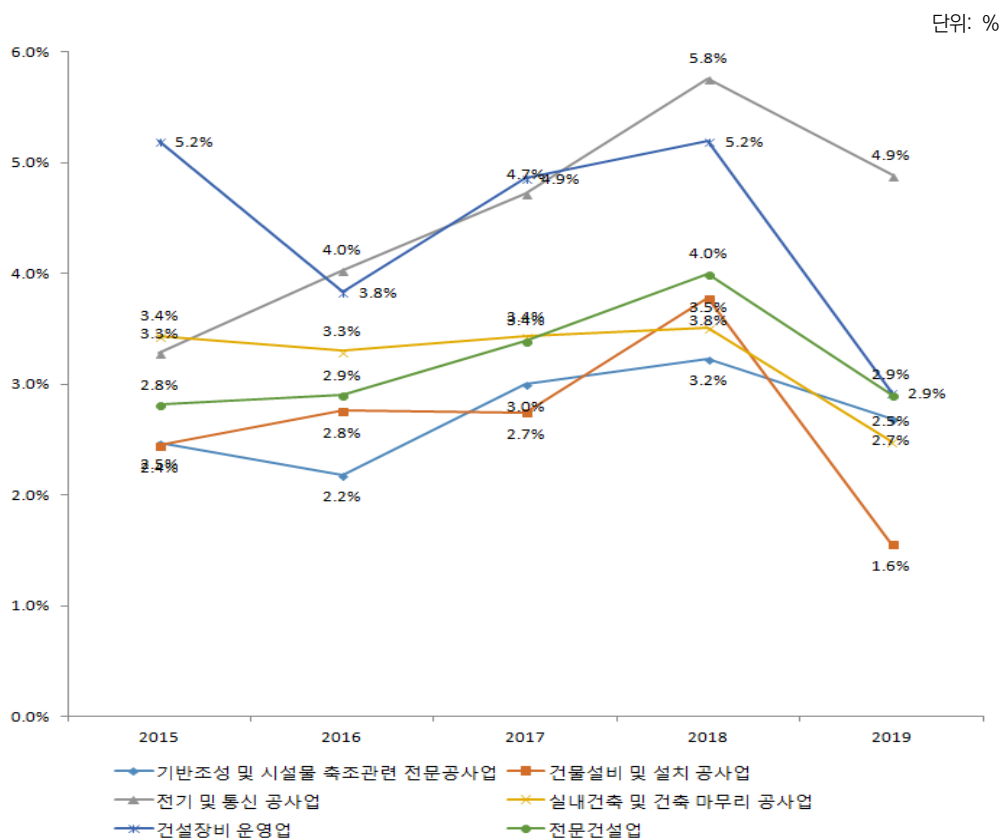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II-15]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매출액 순이익률 동향

□ 전문건설업종의 외감기업의 순이익률은 2.9%로 종합건설업보다 낮은 수준이며, 세부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2019년 들어 모든 세부업종의 순이익률이 감소한 것이 특징임

- 전문건설업 세부 업종 중 가장 높은 순이익률을 기록한 것은 전기 및 통신 공사업으로 2015년 이후 순이익률이 상승하다가 2018년 5.8%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9년은 4.9%를 기록함
- 두 번째로 높은 순이익률을 기록한 업종은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2015년 5.2%에서 등락을 지속하다가 2019년에는 2.9%로 하락함
- 세 번째로 높은 업종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공사업종으로 2018년까지는 2~3%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다 2019년에는 2.7%로 하락하며, 전문건설업종 평균 순이익률보다 낮게 나타남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2018년까지 3% 이상의 순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는 2.5%로 순이익률이 하락함
- 건물설비 및 설치 공사업종은 2017년까지 2%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다가 2018년 3.8%로 순이익률이 상승하였으나 2019년은 1.6%로 가장 낮게 나타남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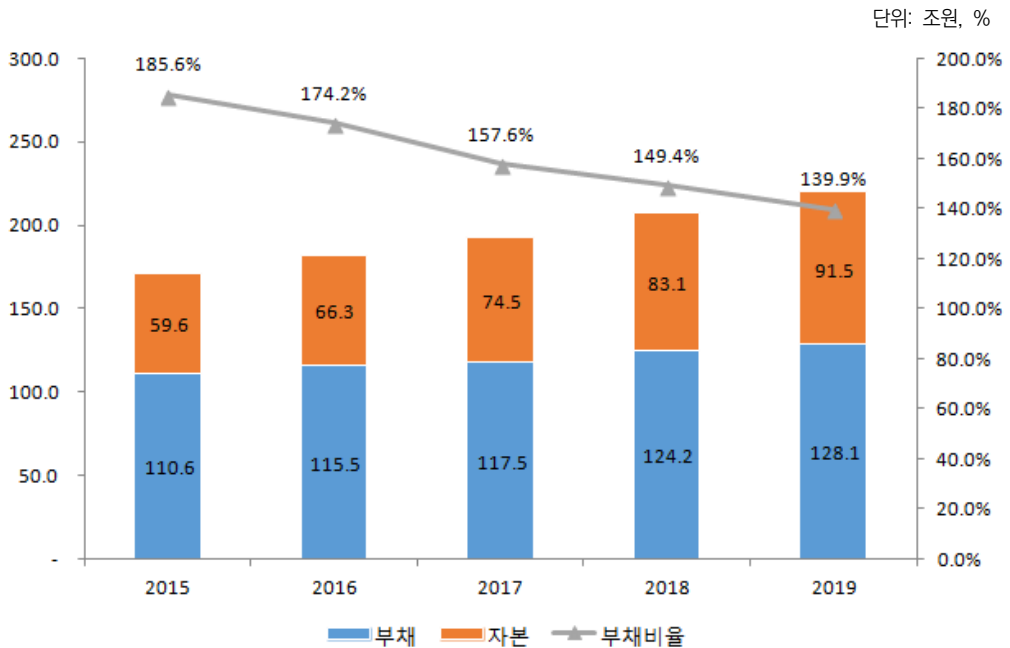
[그림 III-16]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매출액 순이익률 동향

3. 건설업 외감기업 재무구조 동향

□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특히 호황기를 지나 불황기에 진입할 경우에는 매출 감소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파산 등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

□ 건설업 외감기업의 부채 및 자본, 부채비율을 살펴보았는데, 최근 5년간 건설업의 부채와 자본은 모두 증가하였으나 자본의 증가율이 높아 부채비율은 감소하였음

- 건설업의 외감기업들은 자본보다는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2015년 건설업 외감기업의 자산구조는 자본총액 59.6조원에 부채총액이 115.5조원으로 자산총액 170.2조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은 185.6%임
- 이후 4년이 지난 2019년에는 부채총액은 115.5조원에서 128.1조원으로 약 15.8% 성장한 반면, 자본총액은 59.6조원에서 91.5조원으로 53.6% 성장하였음
- 결과적으로 건설업 외감기업의 자산총액은 2014년 170.2조원에서 219.6조원으로 29.0% 상승하였으며, 부채비율은 185.6%에서 139.9%로 45.7%p가 감소하였음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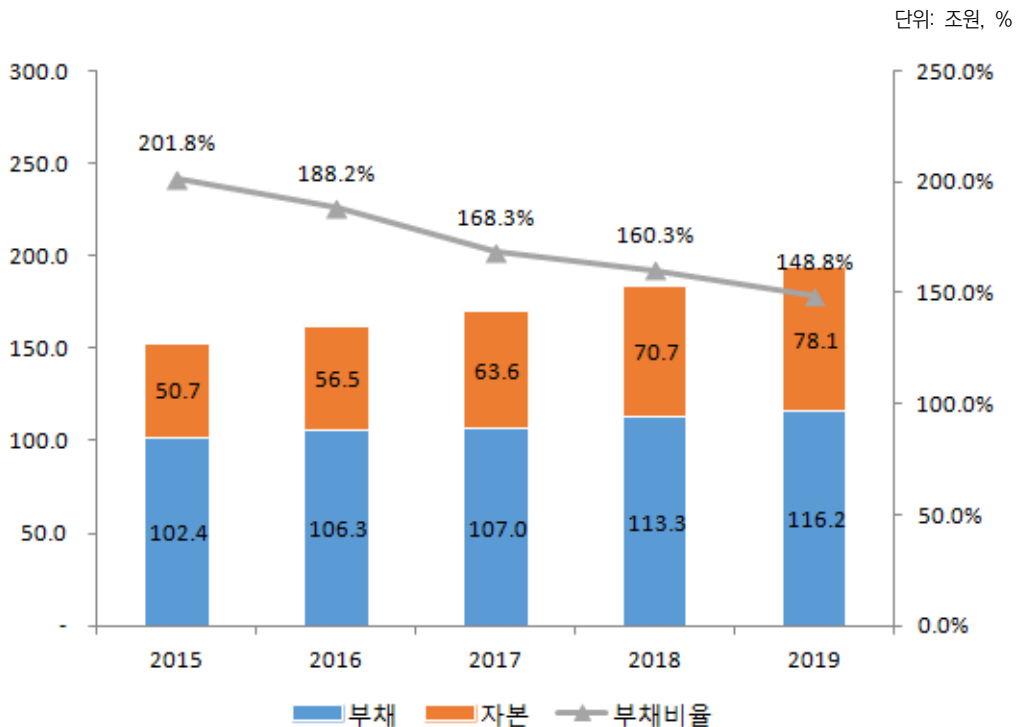
[그림 Ⅲ-17] 건설업 외감기업 재무구조 및 부채비율 동향

□ 건설업 외감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졌지만, 타 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앞 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감기업의 부채비율은 78.5%인 반면 건설업의 부채비율은 139.9%로 약 1.8배 높은 수준임

□ 건설업의 업종별로 분석하면, 종합건설업의 부채비율은 전문건설업종의 부채비율보다 높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자본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102.4조원에 달하던 부채는 2019년 116.2조원으로 13.5%가 상승한 반면, 자본은 50.7조원에서 2019년 78.1조원으로 54.0%로 4배가량 증가함
- 부채비율은 2015년 200%를 상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148.8%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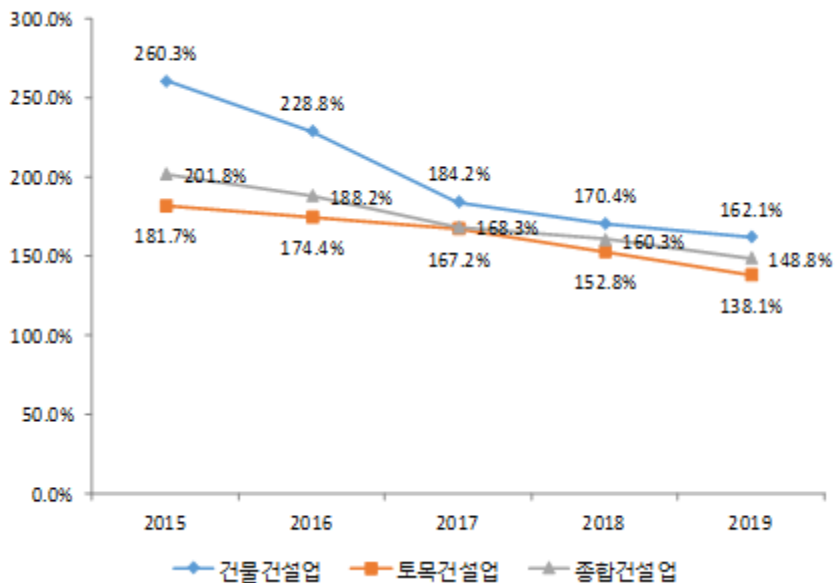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II-18] 종합건설업종 외감기업 재무구조 및 부채비율 동향

- 종합건설업의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물건설업의 부채비율이 토목건설업보다 더 높으나 부채비율의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에 부채비율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건물건설업종의 부채비율은 2015년 260.3% 이었으나 2017년 200% 이하로 내려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2019년 162.1%로 5년 동안 98.2%가 하락하였으며, 연평균으로는 11.2% 감소함
 - 토목건설업종은 부채비율은 2015년 181.7% 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138.1%로 5년 동안 53.1%가 하락하였으며, 연평균으로는 7.3% 감소함
 - 결과적으로 2014년 두 업종의 부채비율 차이는 78.6%에 달하였으나, 2019년에는 24.0%로 크게 감소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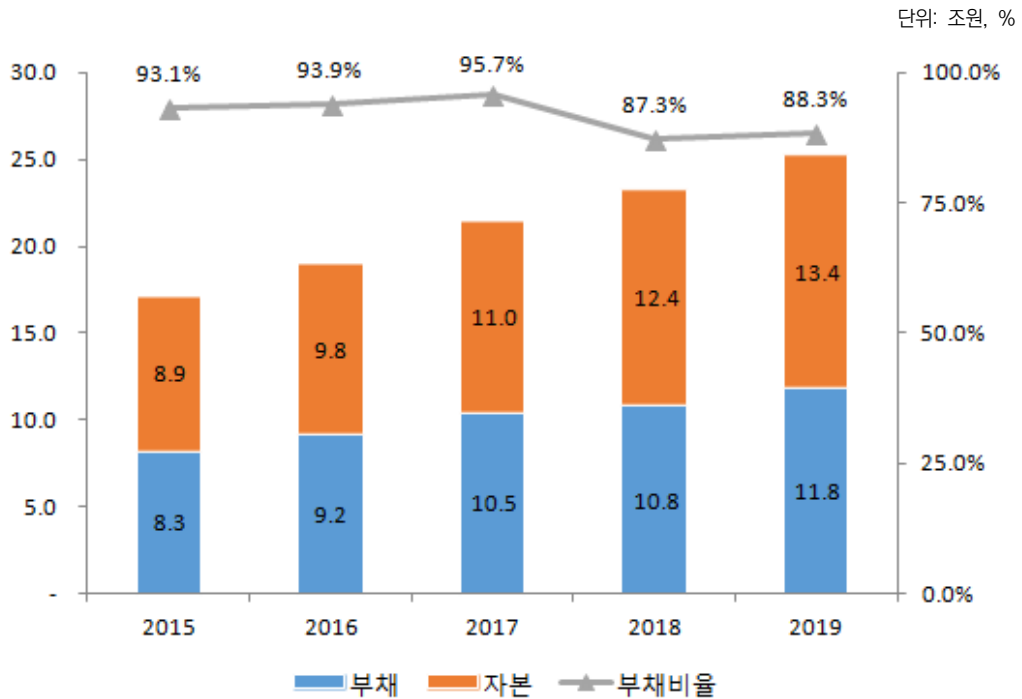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II-19] 종합건설업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재무구조 및 부채비율 동향

- 전문건설업종의 부채비율은 종합건설업과 비교하면 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2017년까지 90%를 상회하다가 2018년부터 80%대로 감소하였음
 - 2014년 8.3조원에 달하던 부채는 2019년 11.8조원으로 43.4%가 상승한 반면, 자본은 8.9조원에서 2019년 13.4조원으로 51.3%로 더 크게 증가함

- 부채비율은 2015년 90%를 상회하였으나 2018년 87.3%로 감소하였으며, 2019년에는 소폭 증가한 88.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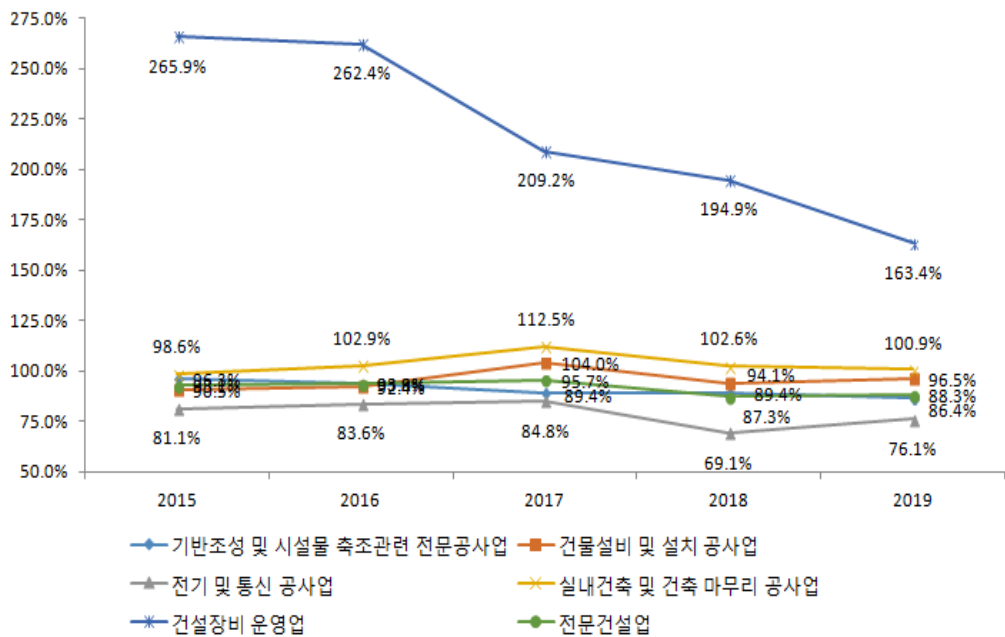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II-20] 전문건설업종 외감기업 재무구조 및 부채비율 동향

- 전문건설업의 세부업종별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건설장비 운영업의 부채비율이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반대로 가장 부채비율이 낮은 업종은 전기 및 통신공사업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업종은 80~100%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장비 확보 및 의존성이 높아 2015년에는 265.9%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2019년에는 부채비율이 163.4%로 크게 낮아졌으며, 여전히 전문건설업종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임
 - 전기 및 통신공사업종 부채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 중 중 가장 낮은 76.1% 이었으나 2018년에 비하면 소폭으로 증가하였음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공사업의 부채비율은 2015년에 비해 9.9% 낮아진 86.4%로 나타나며, 전문건설업종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
- 건물설비 및 설치 공사업종의 부채비율은 2015년에 비해 6.0% 증가한 96.5%로 나타남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종의 부채비율은 2015년에 비해 2.3% 증가한 100.9%로 나타나며, 전문건설업종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인 2018년도와 부채비율을 비교하면 건설장비 운영업(△ 31.6%),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공사업(△ 3.0%),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 1.7%) 업종의 부채비율은 감소한 가운데, 전기 및 통신공사업(7.0%),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2.4%)의 부채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III-21] 전문건설업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재무구조 및 부채비율 동향

4. 건설업 외감기업 경영실적 분석결과 요약

- 건설업의 외감기업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산업의 특징과 5년간의 경영실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먼저 건설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높은 부채비율과 경기변화의 민감성을 들 수 있음
 - 건설업 외감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9.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산업의 부채비율 78.5%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 특히 종합건설업의 부채비율은 148.8% 그중에서도 건물건설업의 부채비율은 162.1%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음
 - 또한 주택경기 호황으로 인해 건물건설 업종으로 외감기업 업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건설투자가 감소한 2018년을 기점으로 외감기업의 수가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외감기업이 3.0%, 건설업체가 5.3% 증가한 것과 비견되며, 건설산업 중견업체의 실적악화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최근 5년간 건설업의 성장세를 주도한 것은 건축 관련 업종이었으나 2017년을 기점으로 실적이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문건설업종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함
 - 최근 5년간의 건축 관련 업종의 실적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종 중 건물건설업의 수익률은 2015년 2.6%에서 2017년 8.1%로 3배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전문건설업종 중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의 순이익률은 2015년 2.4%에서 2018년 3.8%로 상승함
 - 종합건설업체 중 건물건설업종의 순이익률이 고점인 17년 대비 3.1%p 감소하였으며,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의 순이익률은 전년대비 2.2%p 감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의 순이익률은 1.0%p 감소함
 - 한편 전문건설업종의 경영실적은 종합건설업종에 비해 변동폭이 적으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2019년 들어 전년대비 순이익률이 0.9%p 하락한 2.9%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종합건설업체와 순이익률(4.0%)과 비교하면 1.1% 낮은 것으로 나타남

IV

건설업 한계기업 동향 및 특징 분석

1. 건설업 한계기업 동향
2. 건설업 한계기업 특징
3. 한계기업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건설업 한계기업 동향

1) 건설업 이자보상배율 동향

- 앞서 한계기업에 관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연구에서 한계기업을 정의하는 데 있어 활용한 지표는 이자보상배율을 활용하였음
 -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누어서 산출함
 - 이자보상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의미이며, 1보다 크다는 것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금융비용을 지불하고도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의 업체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잠재적인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은행 등은 이러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간주함
 - 반대로 이자보상배율이 1.5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을 살펴보는 것은 전반적인 산업의 부채 및 이익에 따른 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업종별 이자보상배율의 차이 또는 변화는 업종의 외부환경의 변화 또는 업종의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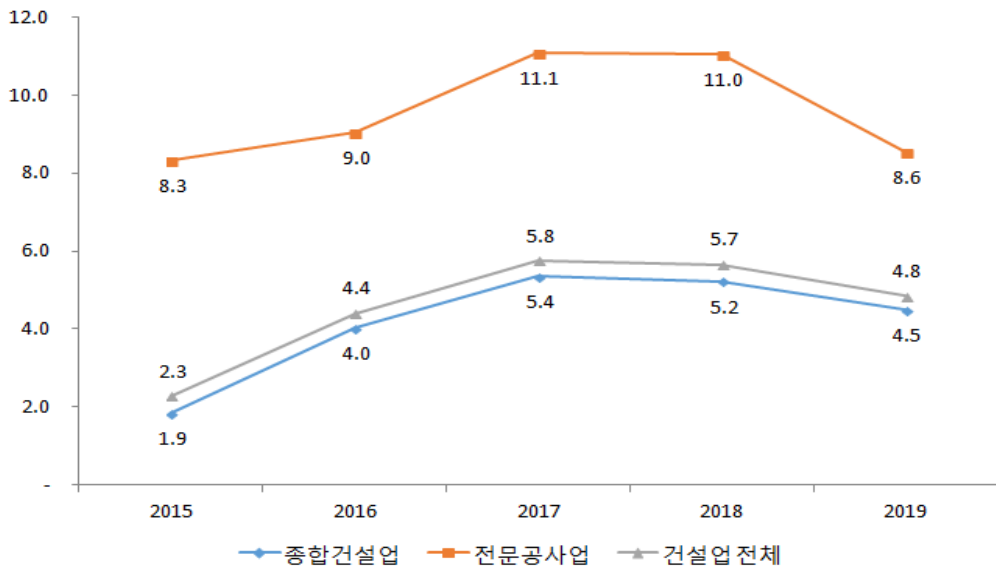
- 건설업 전체의 이자보상 배율은 2019년 기준으로 4.8배이며,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전체 외감기업의 이자보상배율 4.3배와 유사한 수준이나, 2017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음

- 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5년 2.3배에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7년 5.8배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8년에는 5.7배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9년 들어 4.8배로 0.9배가 하락하였음

□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종의 이자보상배율이 전문건설업종의 이자보상배율보다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시공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와 달리 사업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종합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종합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5년 1.9배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상태였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7년 5.8배를 기록하며 고점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 들어 하락하며 4.8배를 기록함
- 전문건설업종은 2015년 8.3에서 2017년 11.1배로 상승하였으나, 2019년 들어 8.6배로 2.4배가 감소하였음
- 건설업 외감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은 2019년 기준으로 업계 평균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는 타 업종의 이자보상배율이 2019년 들어 급락하였기 때문임
- 전체 외감기업의 최근 5년간 이자보상배율은 7.0배를 기록한 반면, 건설업 외감기업의 최근 5년간 이자보상배율은 4.6배로 낮은 편임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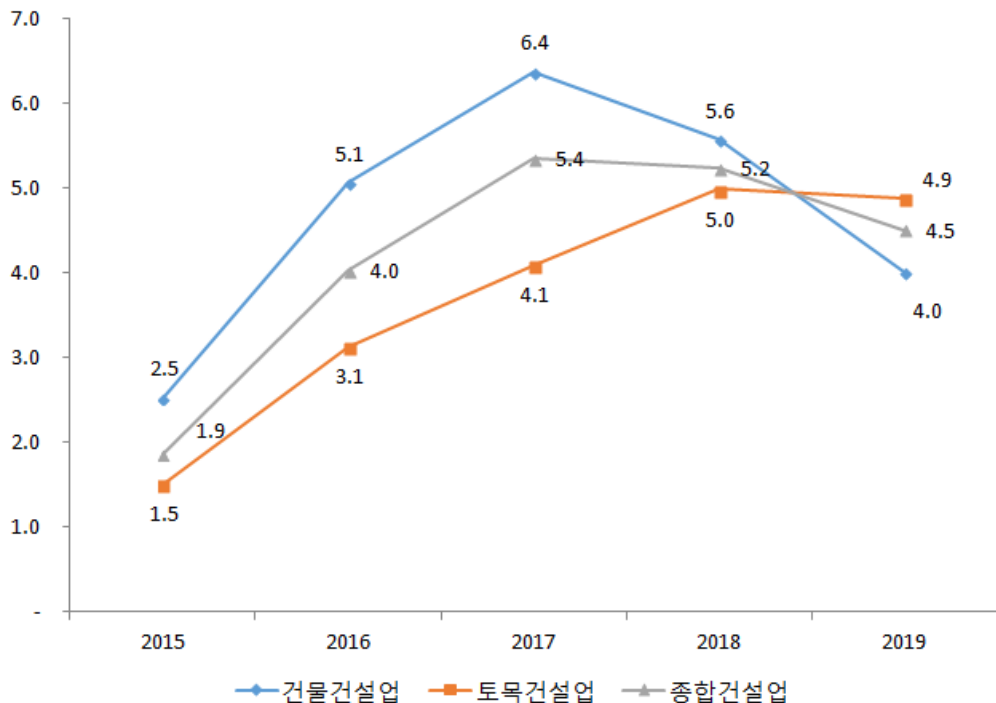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V-1] 건설업 외감기업 이자보상배율 동향

-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이자보상배율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공통적이거나 2018년을 기점으로 토목건설업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건물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감소하였음
- 토목건설업은 2015년 이자보상배율이 1.5배로 낮았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2018년에는 5.0배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소폭 하락한 4.9배를 나타냄
 - 건물건설업은 토목건설업보다는 높은 이자보상배율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2.5배의 비율에서 높게 상승하며, 2017년 6.4배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8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인 5.6배에서 2.6배가 하락한 4.0배를 기록함
 - 결과적으로 2019년 이전에는 건물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이 더 높았으나, 2019년 들어 토목건설업보다 이자보상배율이 더 낮아지며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함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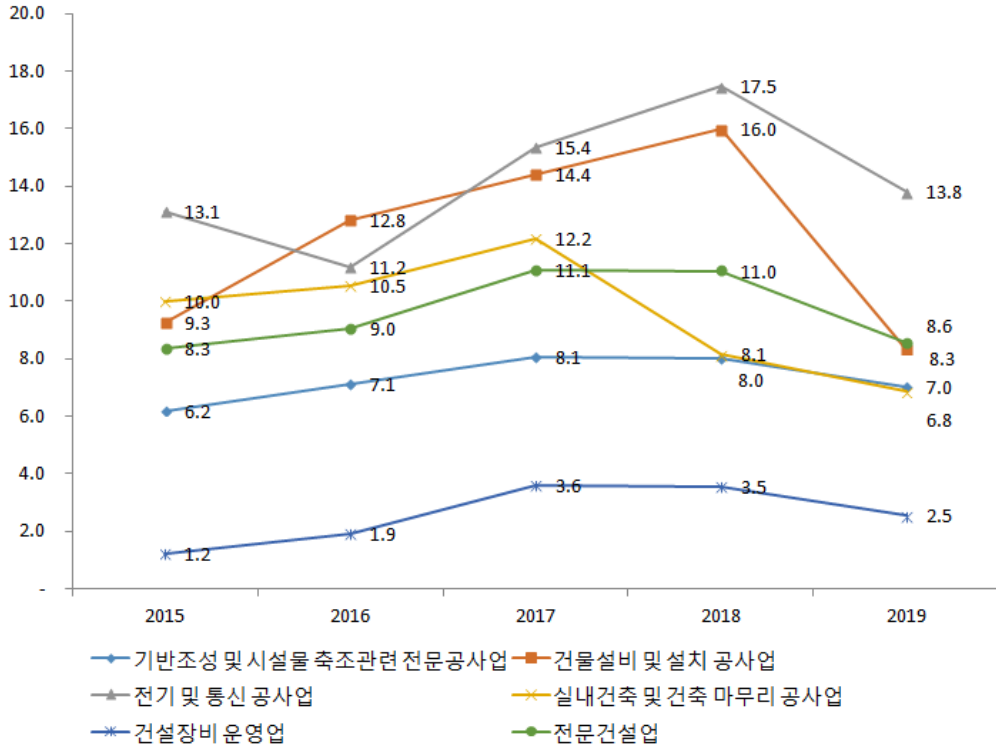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V-2]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이자보상배율 동향

- 전문건설업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9년 기준 8.6배로 안정적인 편이나, 2017년 11.1배 이후 하락중이며, 업종별로 동향과 편차에 차이가 있지만 2019년 들어 모든 세부업종의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하였음
- 가장 높은 이자보상배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전기 및 통신공사업으로 2015년 13.1배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고 있다가 2018년까지 성장하며, 17.5배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한 이후 2019년은 13.8배로 하락하였음
 - 건물설비 설치공사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15년 9.3배에서 2018년까지 16배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9년 들어 8.3배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음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2015년 10배의 이자보상배율에서 2017년 12.2배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전문건설업종 이자보상배율을 하회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8.1배 2019년에는 6.8배로 낮아짐
 - 많은 업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반조성 및 시설물건축 공사업은 2015년 6.2배의 이자보상배율에서 2017년 8.1배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8.0배를 유지하였으나 2019년 들어 7.0배로 낮아짐
 - 건설장비 운영업은 타 업종에 비해 이자보상배율이 낮으며, 2015년 1.2배에서 2017년 3.6배로 상승하였으나 2018년 3.5배, 2019년은 2.5배로 낮아짐
 - 전문건설업 세부업종별 이자보상 배율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기 및 통신공사업은 가장 높은 이자보상배율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 전기 및 통신업종을 제외한 세부업종은 2019년에 이르러 전문건설업종 평균 이자보상 배율보다 낮게 나타남
 - 특히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과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고점대비 하락 폭이 각각 7.6배, 5.4배로 하락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건축 관련 공종의 최근 이자보상배율 하락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단위: 배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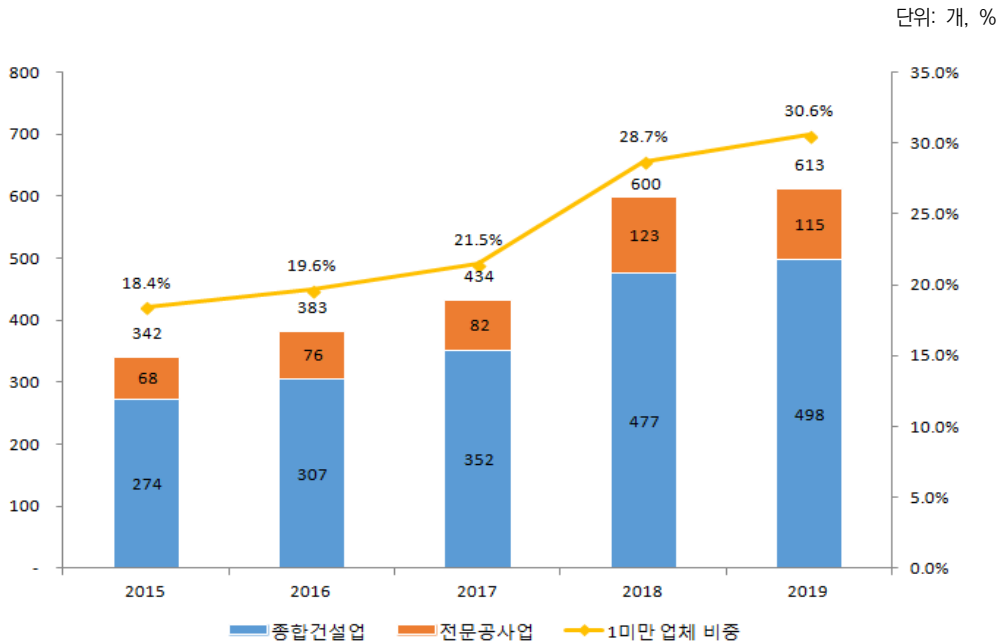
[그림 IV-3]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이자보상배율 동향

2) 건설업 내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동향

-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계기업을 정의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1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경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를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3년 연속이 아닌 업체들을 상황에 따라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있어, 넓은 의미 또는 잠재적인 한계기업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 동향을 살펴보았음

- 건설업에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는 2019년 기준 613개 업체로 2015년 342개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종합건설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종합건설업체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는 2019년 기준 498개사로 2015년 274개사에 비하면 약 81.8%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외감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중 81.2%를 차지하고 있음
 -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전문건설업체는 2015년 68개사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123개사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소폭 감소하여 2019년에는 115개사로 집계됨
 - 또한 외감기업 중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비중은 2015년 18.4%에서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2018년 28.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30.6%로 증가하여 2015년과 비교 시 12.2%p 상승하였음
 - 참고로 전체 외감기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는 35.4%로 건설업체의 평균 비중보다는 높았으나, 전체 외감기업의 2018년도 비중은 35.7%로 오히려 소폭 하락한 반면 건설업종의 증가세는 지속적이며,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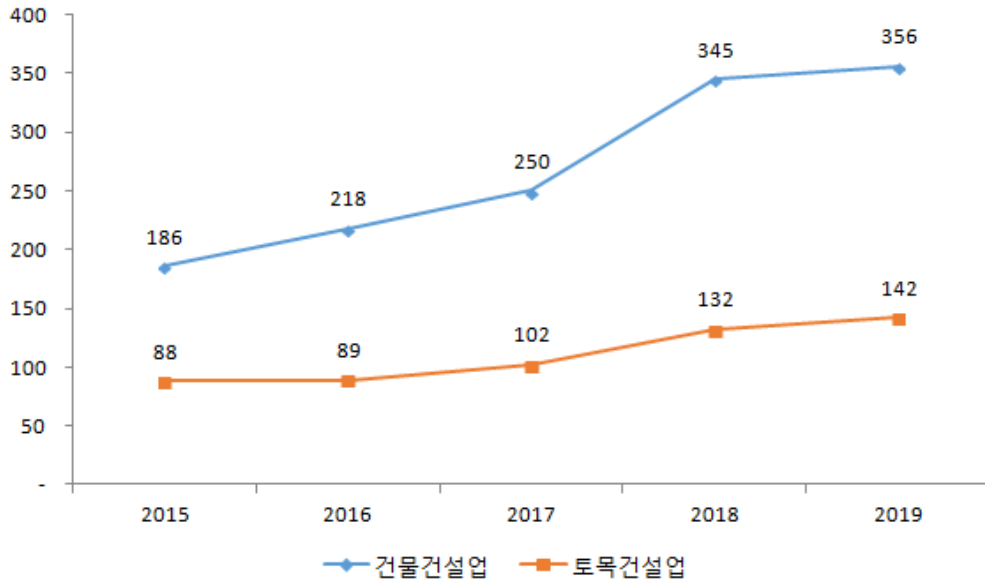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V-4] 건설업 외감기업 이자보상배율 1미만업체 및 비중 동향

-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동향을 살펴보면, 토목건설업체보다는 건물건설업체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2017년 이후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가 증가세가 높은 편임
 - 토목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는 2015년 88개사에서 2017년 102개사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132개사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19년은 142개사로 증가함
 - 건물건설업종은 2015년 186개사에서 증가하여, 2017년 250개사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345개사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19년에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356개사를 나타내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중 건물건설업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1.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세부업종 중 공통적인 사항으로 2018년에 이르러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의 증가세가 건물건설업종은 38.0%, 토목건설업종은 29.4%로 다른 년도와는 다르게 급격히 증가하였음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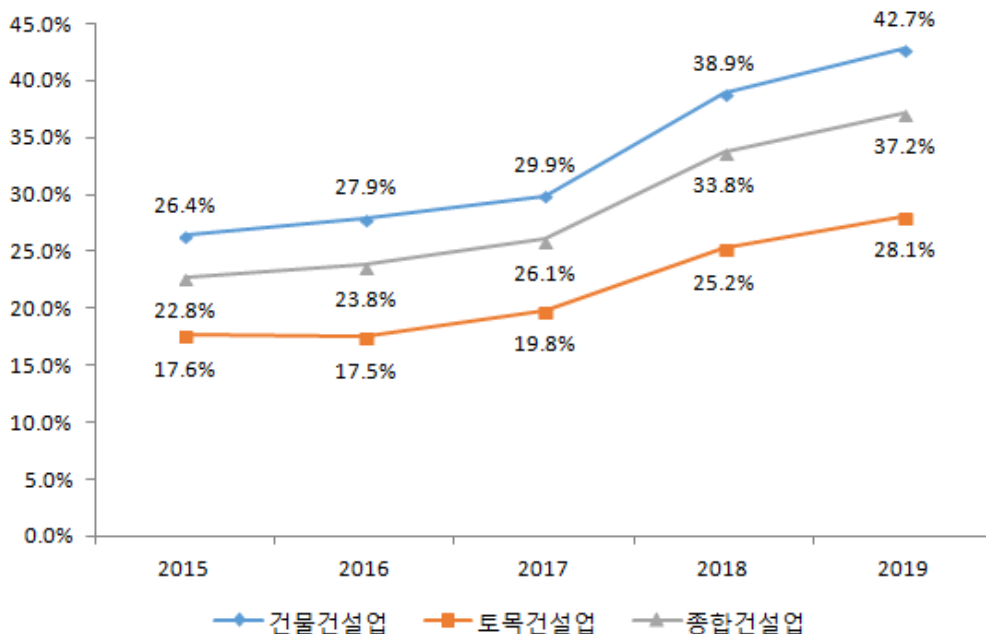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V-5]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업체 동향

-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수는 절대적인 업체 수를 반영하나 업종별로 전체 업체수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비교하기 위해 세부 업종 외감기업 내 이자보상배율 1미만업체 비중(이자보상배율 1미만업체 수 / 업체 수)을 산출하였음
- 종합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비중은 37.2%인 가운데 건물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의 비중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토목건설업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비중은 2015년 17.6%에서 2019년 28.1%로 5년간 10.5% 상승함
 - 건물건설업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비중은 2015년 26.4%에서 2019년 42.7%로 5년간 16.4% 상승하며, 종합건설업종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음
 - 공통적인 부분은 2018년에 이르러 세부업종 모두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비중이 건물건설업종 9.0%, 토목건설업종 5.4%로 다른 연도에 비해 크게 상승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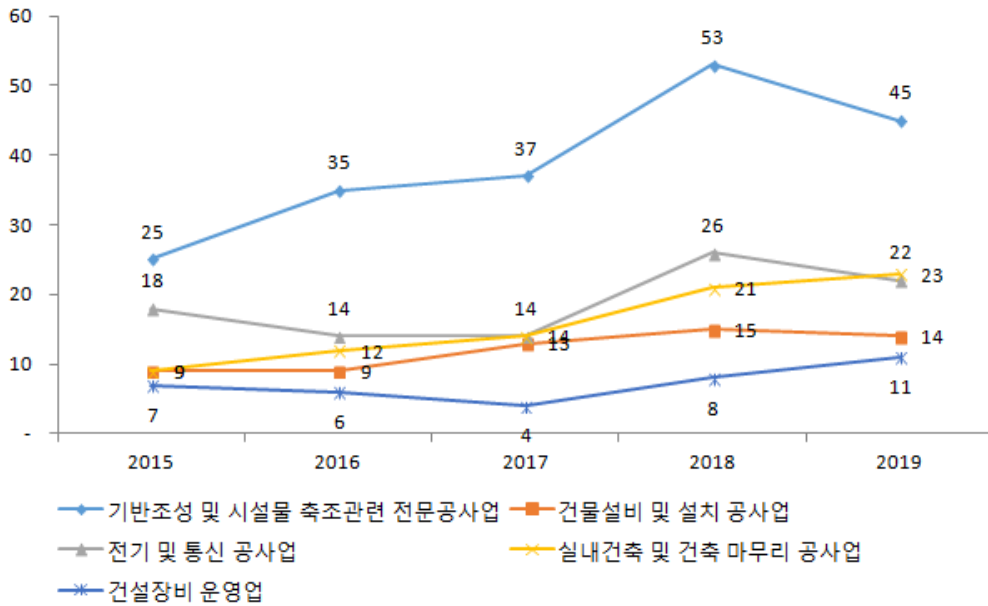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V-6]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업체 비중 동향

□ 전문건설업종에서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까지는 업계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8년에 들어 1미만 업체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과 전기 및 통신공사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건설장비 운영업과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이 증가세를 보임

- 전문건설업에서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공사업으로 2015년에는 25개사 이었으나, 2017년까지 37개사 그리고 2018년에는 53개사로 2018년 들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소폭 하락하여 45개사로 나타남
- 전기 및 통신공사업 역시 2017년까지는 소폭의 등락이 있었으나, 2017년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업체 14개에서 2018년에 이르러 26개사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9년 22개사로 감소함
-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은 2015년에는 9개의 업체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에는 23개로 증가함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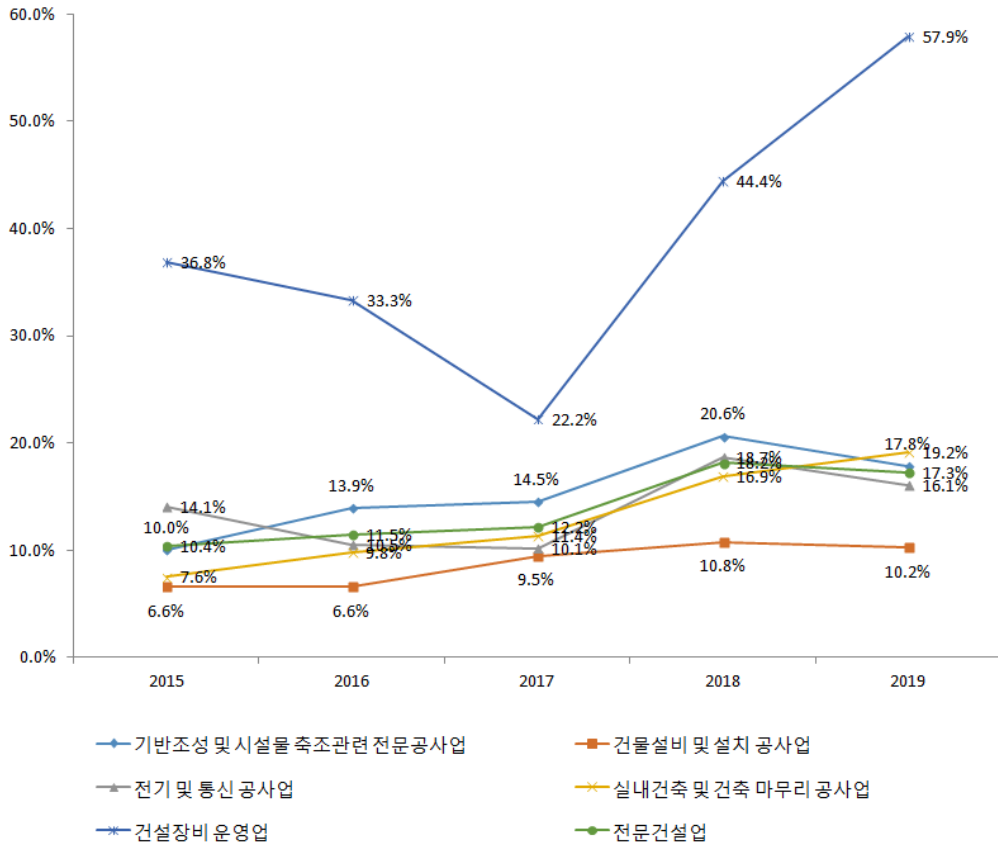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V-7]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업체 동향

□ 전문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비중은 17.3%인 가운데 건설장비 운영업의 한계 기업 비중이 높은 편이며,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건설장비 운영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비중은 2015년 36.8%에서 2017년 22.2%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57.9%에 달함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비중은 2015년 7.6%로 전문건설업종에서 낮은 편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19.2%로 두 번째로 높아짐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공사업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비중은 2015년 10.0%에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에 달하였으나 2019년에 소폭 하락하여 17.8% 수준을 기록함
- 나머지 세부 업종은 역시 소폭의 등락이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단위: %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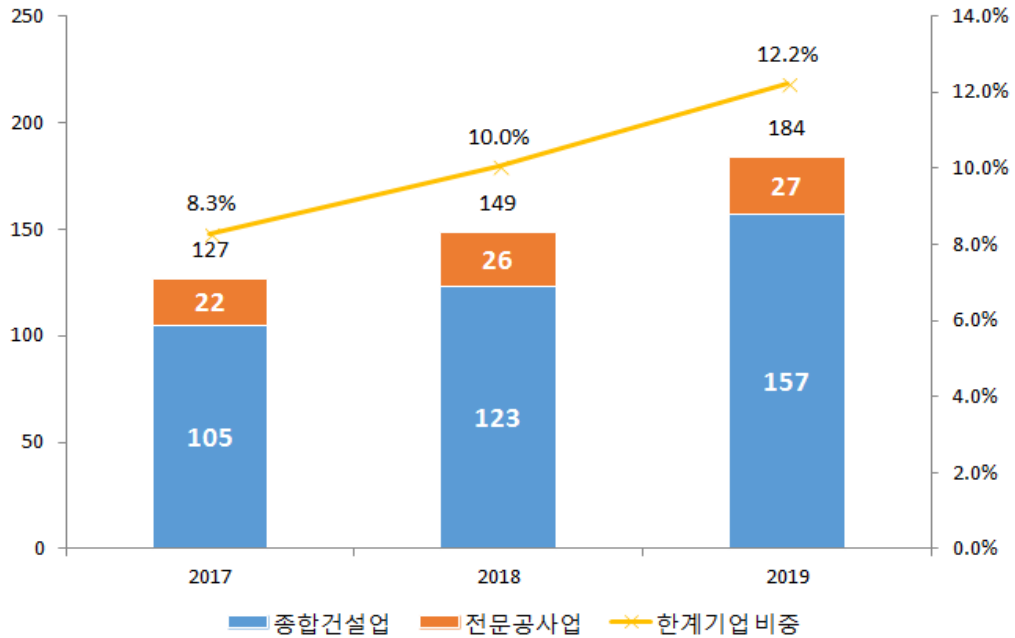
[그림 IV-8]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이자보상배율 1미만업체 비중 동향

3) 건설업 한계기업 동향

- 건설업체의 한계기업 분석은 한국은행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5년 이후의 재무자료를 근거로 파악한 관계로 최근 3년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계기업을 도출하였음
 - 2015년 이후 3년 연속 실적이 존재하는 업체들 중 이자보상 배율이 1미만인 업체를 한계기업으로 선정하였음
 - 지난 3년 연속 KIS-Value에 재무실적이 등록된 업체는 2017년 기준 1,533개사, 2018년 기준 1,484개사, 2019년 기준 1,507개사로 소폭의 등락이 있음

- 건설업내의 한계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184개 업체로 2017년에 127개사에 비하면 57개사, 44.9%가 증가하였으며, 종합건설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들어 상승폭이 증가함
 - 종합건설업내의 한계기업 업체 수는 2019년 기준 157개로 2016년에 105개사에서 52개사가 증가하였으며, 2019년 한계기업의 85.3%를 차지함
 - 전문직별공사업은 2017년 22여 개사에서 2018년 26개사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27개사를 차지함
 - 3년 연속 실적이 존재하는 건설업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3%에서 2018년에는 10.0%, 2019년에는 12.2%에 달함
 - 연도별 상승폭을 살펴보면, 2018년의 한계기업 비중은 전년대비 1.7%p 증가한 반면, 2019년의 비중은 2.2%p 증가해 2019년의 한계기업 비중 상승폭이 증가함

단위: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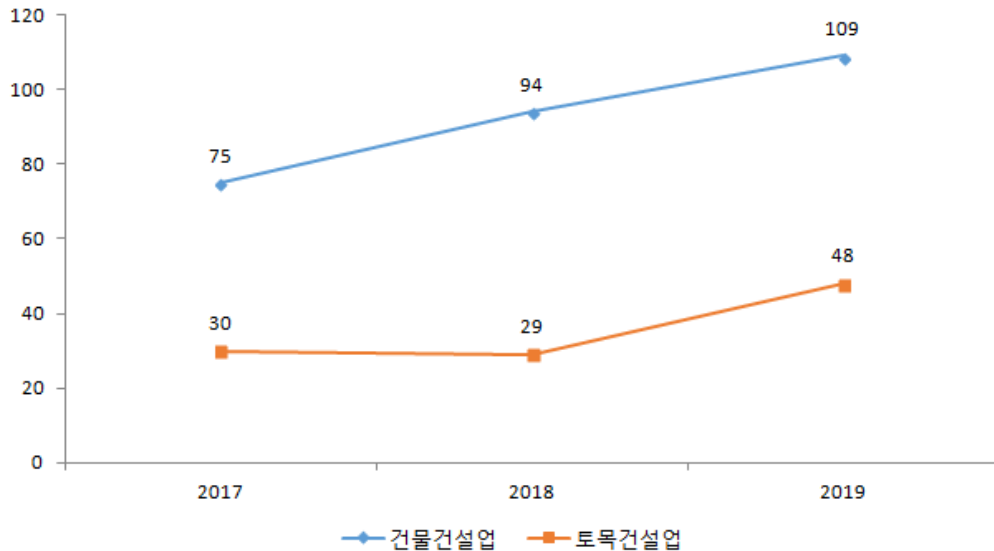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V-9] 건설업 외감기업 한계기업 동향

-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한계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건물건설업의 한계기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토목건설업의 한계기업 수는 2019년 들어 크게 증가함
 - 건물건설업은 한계기업 수는 2017년 75개사에서 2018년 94개사로 19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109개사로 15개사가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토목건설업의 한계기업 수는 2017년 30개에서 2018년 29개사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들어 48개사로 19개 업체가 증가하였음
 - 2019년 기준으로 건물건설업 한계기업이 종합건설업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9년 들어 크게 증가한 토목건설업의 한계기업 수(19개 업체)는 건물건설업(15개 업체) 보다 높음

단위: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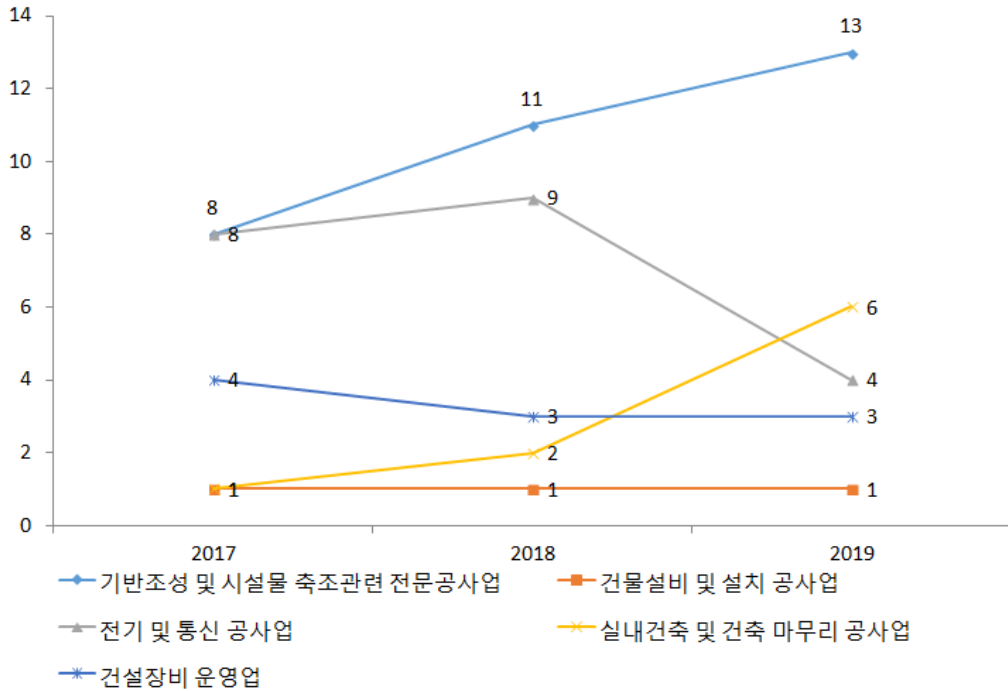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V-10]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한계기업 동향

-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한계기업 동향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종보다는 변동폭이 적으나 동향은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전문건설업 세부업종 중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과 건설장비 운영업의 한계기업은 업체수도 적으며 변동폭이 거의 없음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과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의 한계기업은 2018년과 2019년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냄
 - 전기 및 통신공사업의 한계기업은 2018년 9개사에서 5개 사가 감소하여 4개사로 하락함

단위: 개사, %



자료: KIS-Value

[그림 IV-11]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한계기업 동향

- 결과적으로 건설업의 업종별 한계기업 동향을 살펴본 결과 최근 건설업내의 한계기업 증가는 종합건설업 전반을 중심으로 전문건설업종에서는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공사업종과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 업종에서 증가세가 영향을 주고 있음

2. 건설업 한계기업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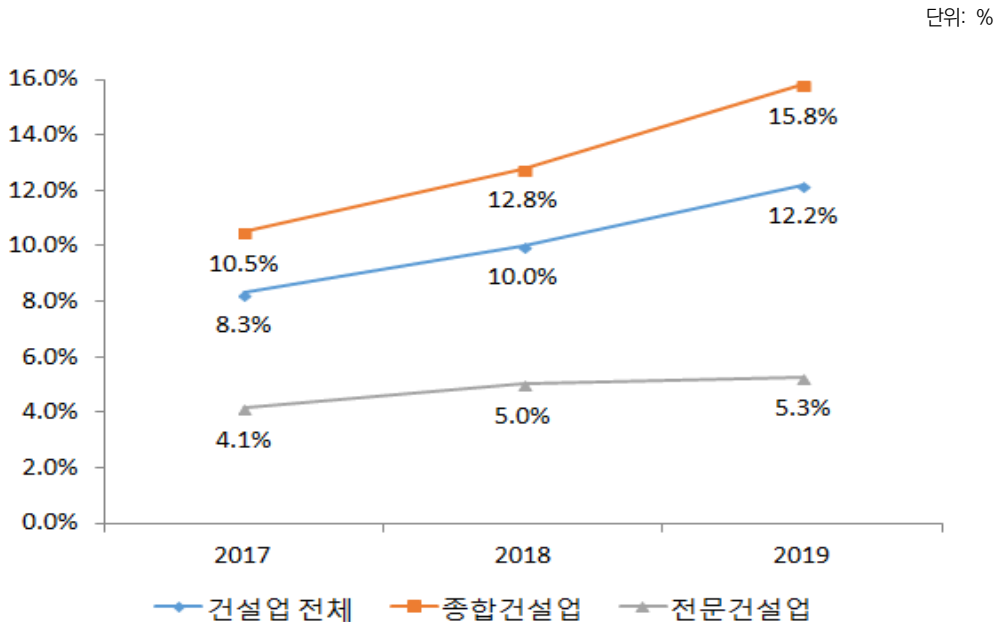
1)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 건설업 한계기업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건설업의 업종(종합/전문) 및 세부업종별 한계기업 비중을 살펴보았음

□ 건설업 외감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12.2%로 2017년 8.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종은 물론 전문건설업종에서도 증가세를 나타냄

- 2017년 건설 외감기업 중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한계기업은 2017년 8.3%에서 2018년 10.0%(1.7%p 증가), 2019년 12.2%(2.2%p 증가)를 나타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이 2017년 10.5%에서 2019년 15.8%로 급증하였으며, 전문건설업종 역시 증가폭은 적지만 2017년에 4.1%에서 2019년 5.3%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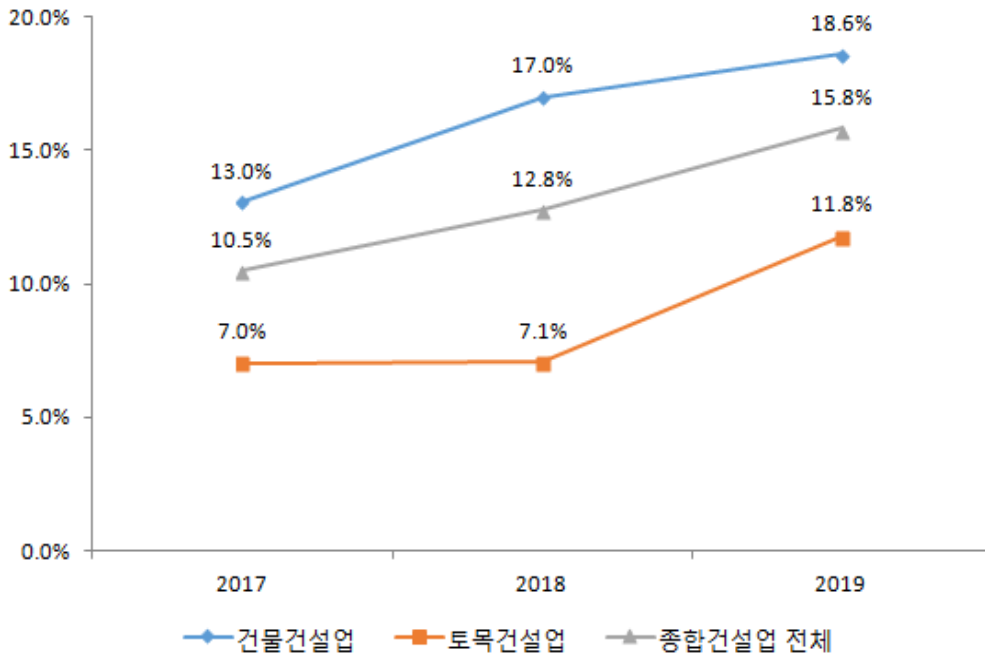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V-12] 건설업 외감기업 한계기업 비중 동향

- 종합건설업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건물건설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8년에 급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토목건설업 내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음
- 종합건설업 내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0.5%에서 2018년에는 12.8%로 전년 대비 2.3%p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15.8%로 전년대비 2.0%p 증가함
 - 토목건설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7.0%에서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18년에는 7.1%로 유사하였으나 2019년 들어 11.8%로 급증함
 - 건물건설업의 2017년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은 13.0%로 토목건설업종에 비해 한계기업의 비중이 더 높았는데 2018년에는 전년대비 4.0%p 증가하며 17.0%를 기록한 이후 2019년도에도 1.6%p 증가하며 18.6%에 달함
 - 따라서 종합건설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건물건설업의 지속적인 증가세에 토목건설업까지도 2019년도에 증가하며, 2017년대 10.5%에서 2년 동안 5.3%p나 증가한 15.8%에 달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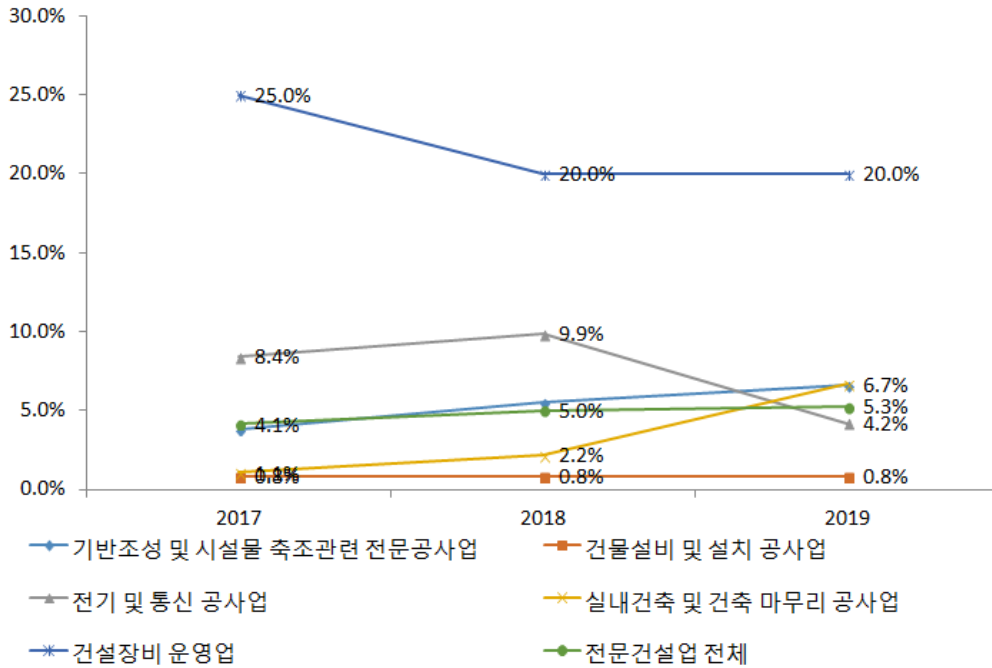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V-13] 종합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동향

-
- 한편 전문건설업종 내에서는 5.3%의 한계기업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건설장비 운영업이 20.0%로 업종내 많은 한계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대로 건물설비 설치공사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건설장비 운영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25.0% 즉 4개 업체 중 1개의 업체가 한계기업일 정도로 많은 한계기업이 있었으나, 2018년 이후 개선되어 20.0%로 낮아짐
 - 건설장비 운영업은 높은 장비의존도로 인해 다른 전문공사업과 달리 많은 부채를 지니고 있고, 외감기업 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큰 특징을 지니고 있음
 -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은 1% 미만의 낮은 한계기업 비중을 지니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1%초반의 한계기업 비중을 지니고 있던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함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공사업 역시 2017년 기준으로 3.8%로 전문공사업 평균보다 낮았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6.6%로 2년 동안 2.8%p가 증가하였음
 - 전기 및 통신공사업종은 2017년 8.4%의 한계기업 비중을 지니고 있었으나, 2019년에 이르러 4.2%대로 낮아지며 전문건설업종 평균보다 낮아짐
 -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 이르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종(6.7%)과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의 한계기업 비중(6.6%)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평균 한계기업 비중(5.3%)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단위: 개사, %



자료: KIS-Value

[그림 IV-14] 전문건설업 외감기업 세부업종별 한계기업 비중 동향

2) 규모별 한계기업 동향

- 건설업의 규모에 따른 한계기업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한계기업 동향을 살펴보았음
 -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건설업의 중소기업은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건설 외감기업의 규모에 따른 한계기업 동향을 살펴본 결과, 한계기업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었음
 - 2019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규모별 한계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전체 184개사 중 25개사로 13.6%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은 159개사로 86.4%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업 내에서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합건설업 내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소폭 더 높았음
 - 종합건설업 한계기업 157개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개사 13.4% 이었으며, 중소기업은 136개사 86.6%를 차지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 중 내에서는 총 20개의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4개사 14.8% 이었으며, 중소기업 23개사로 85.2%를 차지하고 있음

〈표 IV-1〉 기업규모별 업종별 한계기업 현황(2019년 기준)

(단위: 개, %)

| 기업 | 종합건설업 | | 전문공사업 | | 합계 | |
|------|-------|--------|-------|--------|-----|--------|
| | 업체수 | 업종내 비중 | 업체수 | 업종내 비중 | 업체수 | 전체 비중 |
| 대기업 | 21 | 13.4% | 4 | 14.8% | 25 | 13.6% |
| 중소기업 | 136 | 86.6% | 23 | 85.2% | 159 | 86.4% |
| 총합계 | 157 | 100.0% | 27 | 100.0% | 184 | 100.0% |

자료: KIS-Value

□ 업종별/규모별 한계기업을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종의 중소기업이 전체 한계기업의 73.9%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한계기업 분포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변동비를 살펴본 결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율이 더 높았으며, 종합건설업종의 한계기업 기업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한계기업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전년 대비 1개사 증가하여, 4.2%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24개사 증가하여,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종합건설업이 34개사 증가하며, 27.6%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전문건설업은 1개사 증가하며,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전문건설업종 내 대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율(100.0%)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계기업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임
- 가장 많은 한계기업이 증가한 분야인 종합건설업의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율은 34.7%로 실질적으로 건설업 한계기업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건설업 한계기업 수는 2018년 149개에서 23.5%(35개 업체)가 증가하였음

〈표 IV-2〉 기업규모별 업종별 한계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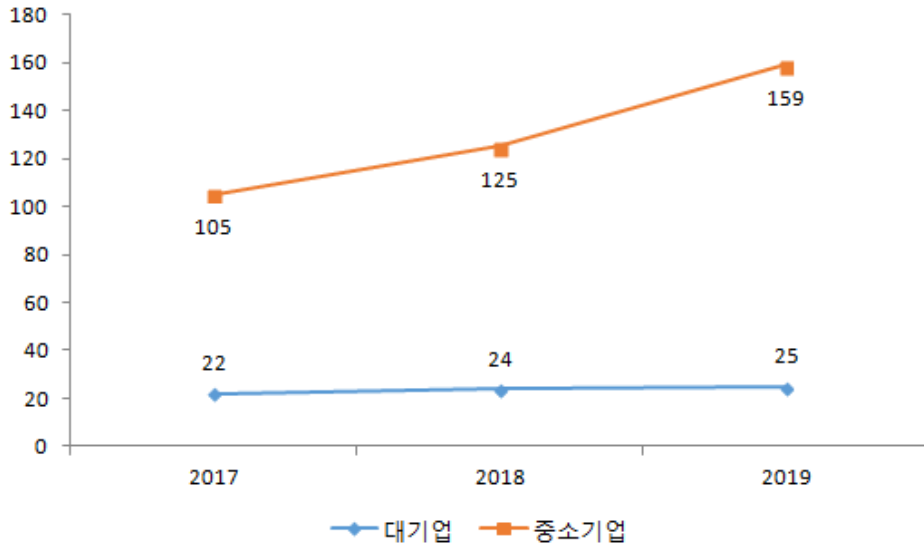
(단위: 개, %)

| 연도 | 2018년 | | | 2019년 | | | 변동비 | | |
|------|-----------|-----------|-----|-----------|-----------|-----|-----------|-----------|-------|
| | 종합 건설업 | 전문 공사업 | 총합계 | 종합 건설업 | 전문 공사업 | 총합계 | 종합 건설업 | 전문 공사업 | 총합계 |
| 대기업 | 22 | 2 | 24 | 21 | 4 | 25 | -4.5% | 100.0% | 4.2% |
| 중소기업 | 101 | 24 | 125 | 136 | 23 | 159 | 34.7% | -4.2% | 27.2% |
| 총합계 | 123 | 26 | 149 | 157 | 27 | 184 | 27.6% | 3.8% | 23.5% |

자료: KIS-Value

- 건설업의 규모별 한계기업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 한계기업은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건설업의 한계기업 중 대기업은 2017년 22개사에서 2019년 25개사로 3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성장률로는 13.6%를 기록함
 - 반면 건설업의 한계기업 중 중소기업은 2017년 105개사에서 2019년 159개사로 54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성장률로는 51.4%를 기록함
 - 결과적으로 최근 3년간 건설업의 한계기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폭은 대기업의 증가폭보다 3.8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단위: 개사



자료: KIS-Value

[그림 IV-15] 건설업 외감기업 규모별 한계기업 동향

3) 지역별 한계기업 동향

- 한계기업의 지역적 분포 및 변동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별로 구분하여 외감기업과 한계기업 그리고 한계기업 비중을 살펴보았음
 - 지역의 구분은 본사의 소재지를 대상으로 해서 구분하였으며, 광역시 및 자치도 17개 지역으로 구분함
 - 외감기업은 일정 이상의 규모를 지니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인접 타 지역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본사의 위치가 있는 해당지역 역시 주요 지역시장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해당지역의 특성 및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외감기업의 한계기업을 탐색하는 하는 것은 지역적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외감기업의 지역적 분포는 수도권에 비수도권에 각각 절반씩 분포하고 있었으며, 한계기업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감기업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서울에 526개 업체, 인천에 86개 업체 경기 지역에 407개 업체로 총 1019개의 업체가 분포해 있으며, 전체 외감기업 중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8%로 나타났음
 - 외감기업이 많은 지역 순은 서울(526개), 경기(407개), 부산(204개), 광주(125개), 전남(104개) 이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100개 미만의 외감기업이 분포되어 있음
 - 한계기업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서울에 40개 업체, 인천에 9개 업체 경기 지역에 39개 업체로 총 88개의 업체가 분포해 있으며, 전체 한계기업 중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8%로 나타났음
 - 한계기업이 많은 지역 순은 서울(40개), 경기(39개), 부산(23개), 광주(21개)나머지 지역은 10개 미만의 한계기업이 분포되어 있음

〈표 IV-3〉 지역별 외감기업 및 한계기업 동향

(단위: 개, %)

| 구분 | 2018년 | | | 2019년 | | |
|-----|-------|------|----------|-------|------|----------|
| | 외감기업 | 한계기업 | 한계기업 비중* | 외감기업 | 한계기업 | 한계기업 비중* |
| 서울 | 544 | 35 | 6.4% | 526 | 40 | 7.6% |
| 부산 | 216 | 18 | 8.3% | 204 | 23 | 11.3% |
| 대구 | 62 | 3 | 4.8% | 61 | 2 | 3.3% |
| 인천 | 89 | 4 | 4.5% | 86 | 9 | 10.5% |
| 광주 | 127 | 16 | 12.6% | 125 | 21 | 16.8% |
| 대전 | 48 | 2 | 4.2% | 46 | 4 | 8.7% |
| 울산 | 66 | 4 | 6.1% | 58 | 5 | 8.6% |
| 세종 | 5 | 0 | 0.0% | 5 | 0 | 0.0% |
| 경기 | 425 | 32 | 7.5% | 407 | 39 | 9.6% |
| 강원 | 23 | 1 | 4.3% | 21 | 1 | 4.8% |
| 충북 | 56 | 5 | 8.9% | 55 | 6 | 10.9% |
| 충남 | 63 | 4 | 6.3% | 60 | 7 | 11.7% |
| 전북 | 51 | 6 | 11.8% | 49 | 5 | 10.2% |
| 전남 | 105 | 4 | 3.8% | 104 | 7 | 6.7% |
| 경북 | 61 | 4 | 6.6% | 62 | 3 | 4.8% |
| 경남 | 95 | 7 | 7.4% | 88 | 7 | 8.0% |
| 제주 | 52 | 4 | 7.7% | 48 | 5 | 10.4% |
| 총합계 | 2088 | 149 | 7.1% | 2005 | 184 | 9.2% |

*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기업으로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앞 절의 한계기업 분포 2018년 10.0%, 2019년 12.2%와는 차이가 존재함

자료: KIS-Value

□ 한계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9.2%로 나타나는 가운데 광주, 충남, 부산,

충북, 인천, 제주, 전북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한계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광주(16.8%), 충남(11.7%), 부산(11.3%), 충북(10.9%), 인천(10.5%), 제주(10.4%), 전북(10.2%)의 순이었으며, 경기 지역도 9.6%로 전국 평균 9.2%를 넘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수도권 지역의 한계기업 비중은 서울 7.6%, 인천 10.5%, 경기 9.6%로 수도권의 한계기업 비중은 8.6%로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 한계기업 비중은 9.7%로 나타남

〈표 IV-4〉 수도권/비수도권 외감기업 및 한계기업 동향

(단위: 개, %)

| 구분 | 2018년 | | | 2019년 | | |
|------|-------|------|----------|-------|------|----------|
| | 외감기업 | 한계기업 | 한계기업 비중* | 외감기업 | 한계기업 | 한계기업 비중* |
| 수도권 | 1058 | 71 | 6.7% | 1019 | 88 | 8.6% |
| 비수도권 | 1030 | 78 | 7.6% | 986 | 96 | 9.7% |
| 총합계 | 2088 | 149 | 7.1% | 2005 | 184 | 9.2% |

*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기업으로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앞 절의 한계기업 분포 2018년 10.0%, 2019년 12.2%와는 차이가 존재함

자료: KIS-Value

□ 전년도와 비교하면 한계기업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고르게 증가하여 한계기업의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권과 호남권의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더 높았고 영남권의 증가세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의 한계기업은 전년대비 17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한계기업 비중은 1.9%p 상승하였음
- 충청권의 한계기업은 전년대비 6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한계기업 비중은 3.8%p 상승하였음
- 호남권의 한계기업은 전년대비 7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한계기업 비중은 2.7%p 상승하였음

- 영남권의 한계기업은 전년대비 4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한계기업 비중은 1.3%p 상승하였음
- 강원 및 제주 지역의 한계기업은 전년대비 1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며, 한계기업 비중은 2.9%p 상승하였음

〈표 IV-5〉 지역별 외감기업 및 한계기업 변동 현황

(단위: 개, %)

| 구분 | 2018년 | | | 2019년 | | | 한계기업 증감 | |
|-------|-------|------|----------|-------|------|---------|---------|----------|
| | 외감기업 | 한계기업 | 한계기업 비중* | 외감기업 | 한계기업 | 한계기업 비중 | 한계기업 | 한계기업 비중* |
| 수도권 | 1058 | 71 | 6.7% | 1019 | 88 | 8.6% | 17 | 1.9%p |
| 충청권 | 172 | 11 | 6.4% | 166 | 17 | 10.2% | 6 | 3.8%p |
| 호남권 | 283 | 26 | 9.2% | 278 | 33 | 11.9% | 7 | 2.7%p |
| 영남권 | 500 | 36 | 7.2% | 473 | 40 | 8.5% | 4 | 1.3%p |
| 강원/제주 | 75 | 5 | 6.7% | 69 | 6 | 8.7% | 1 | 2.0%p |
| 총합계 | 2088 | 149 | 7.1% | 2005 | 184 | 9.2% | 35 | 2.0%p |

*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재무제표가 존재하는 기업으로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앞 절의 한계기업 분포 2018년 10.0%, 2019년 12.2%와는 차이가 존재함

자료: KIS-Value

4) 한계기업과 정상기업 재무지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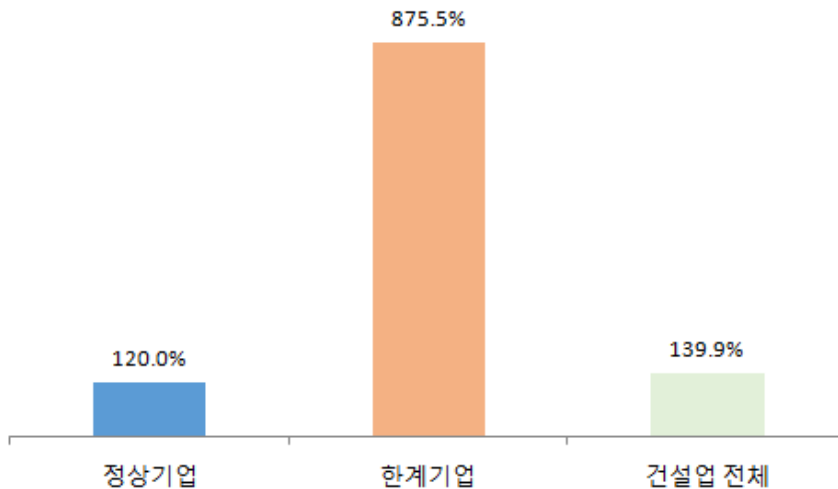
□ 한계기업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재무지표를 업종 전체와 정상기업과 비교하여 한계기업의 특징을 분석하였음

- 비교한 재무지표는 한계기업의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부채비율, 한계기업을 규명하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 수익성에 관한 지표인 영업이익률, 순이익률과 ROA를 비교하였음

□ 먼저 한계기업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부채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한 결과 건설업 업종 전체의 부채비율은 139.9%, 정상기업은 120.0%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은 875.5%로 나타남

- 한계기업의 합산 부채비율 875.5%는 업종 전체와 비교 시 6.3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정상기업과 비교 시 7.3배나 높은 수치임
- 12% 수준의 한계기업의 존재가 전체 건설업의 부채비율을 19.9%p 증가하는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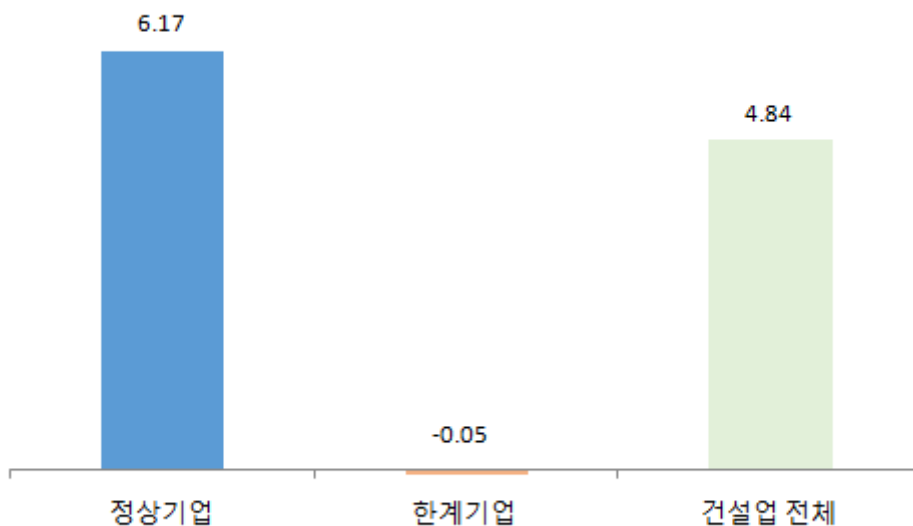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V-16] 건설업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부채비율 비교

- 또한 한계기업을 정의하는데 활용되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건설업종 전체에서 4.84배이고, 정상기업이 6.17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한계기업의 이자보상 배율은 -0.05로 나타나 사실상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경우는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큰 경우이지만 0미만인 음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0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해야 함
 - 따라서 한계기업 영업이익 합산의 값이 음수라는 것은 영업손실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단위: 배



자료: KIS-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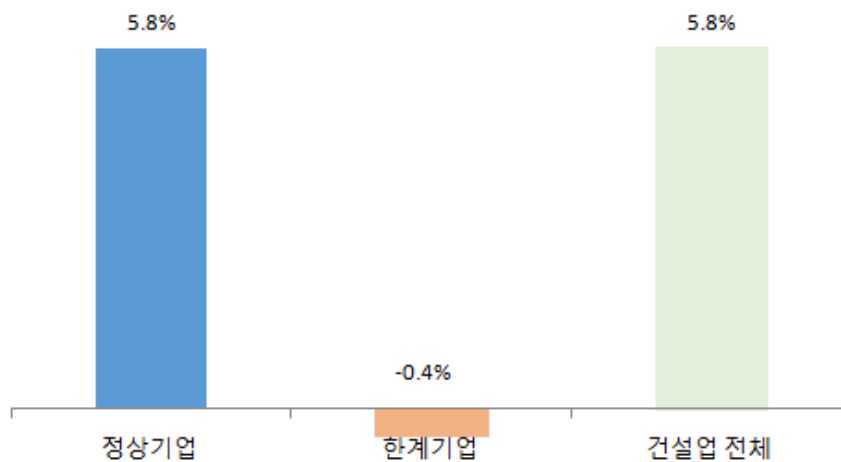
[그림 IV-17] 건설업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이자보상배율 비교

- 이자보상배율이 음의 값이 나온 것을 수익성 지표인 한계기업의 영업이익률로 확인한 결과 한계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4%로 업종 전체 및 정상기업 영업이익률 5.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남
 - 정상기업과 건설업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5.8%로 거의 동일³⁾하게 나타남

3) 정상기업의 영업이익률이 0.004% 높음

- 반면 한계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4%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 184개 업체 중 78.3%인 144개 업체의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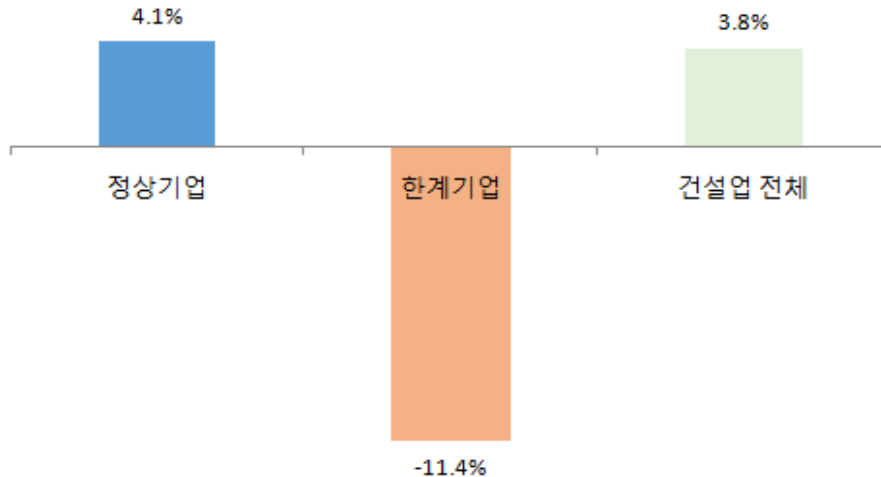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V-18] 건설업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영업이익률 비교

-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이익과 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으로 산출한 매출액 순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한계기업의 순이익률은 -11.4%이며, 정상기업은 4.1%, 업종 전체는 3.8%로 나타남
 - 정상기업의 순이익률은 4.1%로 건설업 전체의 순이익률 3.8%보다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한계기업의 순이익률은 -11.4%로 나타나 건설업 전체에 비하면 15.2%p 낮으며, 정상기업과 비교하면 15.4%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 184개 업체 중 76.6%인 141개 업체의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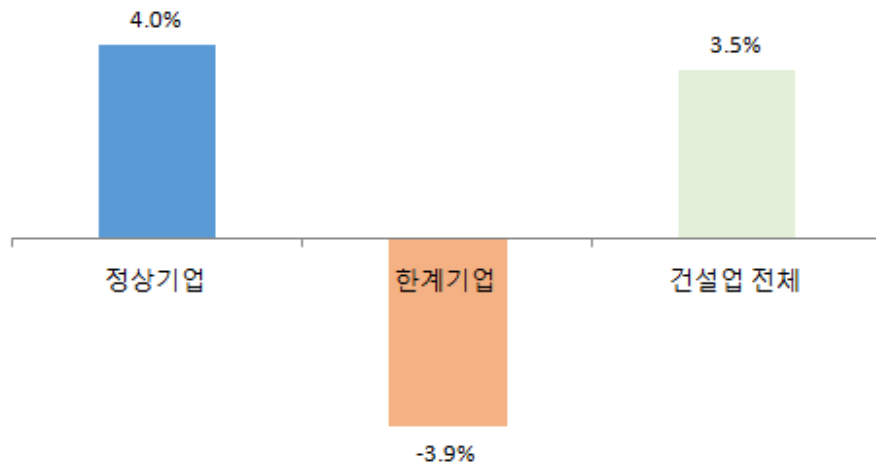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그림 IV-19] 건설업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 또 다른 수익성 지표인 ROA(Return Of Assets; 총자산수익률)⁴⁾를 분석한 결과 업종 전체의 ROA가 3.5%, 정상기업의 ROA는 4.0%로 나타난 반면, 한계기업의 ROA는 -3.9%로 나타나 투입된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음
 - ROA는 기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이 아닌 자산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할 경우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과거의 추이나 유사한 업종내에서 비교할 경우 유의미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
 - 한계기업의 ROA는 -3.9%로 업종 전체와는 -7.3%p, 정상기업과는 -7.9%p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같은 건설업종 내에서 한계기업과 정상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 하락으로 인해 한계기업 자산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질 경우 ROA 값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

4)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수익률): 당기순이익/총자산으로 산출하며,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동일업종 내에서, 또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 또는 평가할 수 있음

단위: %



자료: KIS-Value

[그림 IV-20] 건설업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ROA 비교

3. 건설업 한계기업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한계기업의 3년간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한계기업 수와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건물건설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높았음
 - 건설업 외감기업의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는 2018년 대비 13개사 증가한 613개사로 2015년 342개사에서 79.2% 증가하였으며, 건설업 외감기업의 30.5%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의 한계기업은 전년도에 비해 22개 업체 증가하였으나, 2019년 35개사가 8증가하였으며, 업체 내 비중 역시 2018년에 1.7%P 증가한 10.0%를 나타낸 이후 2019년은 12.2%로 2.2%P로 증가폭이 더 높아짐
 - 이러한 한계기업 증가에는 종합건설업종의 증가가 원인으로 건물건설업종은 최근 3년간 한계기업이 45.3%(34개)가 증가하였으며, 토목건설업은 3년간 60.0%(18개)가 증가하였음

- 또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86.6%로 전년대비 한계기업 업체 수 증가율 역시 중소기업이 더 높았음
 - 2019년의 한계기업 변동을 규모별로 분석하면 대기업의 한계기업 증가는 4%(1개)인 반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율은 27%(34개)로 나타남

- 한계기업의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계기업은 정상기업과 비교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음
 - 2019년 기준 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은 875.5%로 정상기업의 120.0% 보다 7.3배 높았으며, 정상기업의 이자보상 배율은 6.17인 반면, 한계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0.05로 나타나 영업손실을 내는 기업들이 많고 재무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수익성을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에서는 정상기업이 5.8%, 한계기업은 -0.4%로 나타났으며 순이익률은 정상기업이 4.1%, 한계기업은 -11.4%로 한계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ROA 역시 정상기업은 4.0%인 반면, 한계기업은 -3.9%로 나타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방향

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한계기업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실기업을 뜻하며, 산업내의 한계기업 증가는 산업내의 금융자원, 인적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 건설산업은 외부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경제위기에 취약하여 연쇄부도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산업의 내실을 파악할 수 있는 한계기업 동향 파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의 동향을 산업적 총괄 지표가 아닌 기업 수준으로 분석하여 건설산업의 리스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건설업 외감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경영실적과 한계기업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였음
- 이번 연구의 의의는 건설업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규모별 경영실적 분석을 실시하여 건설업의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점과 건설업 내의 한계기업의 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여 부실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것임
- 2019년 건설업의 외감기업은 총 2,005개사로 4년 전인 2015년 1,857개사에서 148개사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인 2018년에 비하면 53개사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내 전체 산업의 외감기업 및 건설업체 수가 증가한 가운데 나타났음
- 외감기업이 전체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이며, 종합건설업체의 외감기업은 1,339개사(전문건설업: 506개사)로 전체 2,005개사의 66.8%를 차지하고 있었

으며, 규모별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 전체 외감기업의 84.6%(1,697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업종별로 봤을 때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설업(506개사, 37.6%)보다 건물건설업(833개사, 62.6%)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변동폭도 크게 나타나는 반면, 전문건설업은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공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253개사, 38.0%)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기 및 통신업체만이 5년 전과 비교 시 소폭 증가하였음

□ 건설업 외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071억원으로 종합건설업이 1,323억원, 전문건설업이 61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종합건설업종내에서는 건물건설업(897억원)보다는 토목건설업(1,489억원)이 평균매출액이 더 높았고, 전문건설업종에서는 건물설비 설치공사업(716억원), 전기 및 통신공사업(710억원), 기반조성 및 시설물 공사업(586억원), 실내건축 및 마무리 공사업(492억원), 건설장비 운영업(227억원)의 순이었음

- 종합건설업의 세부 업종인 토목건설업과 건물건설업 모두 2017년 평균 매출액의 고점(토목: 1,545억, 건물: 966억)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전문건설업종은 업체수의 변화가 크게 없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의 성장률(연평균 10.8%)과 건물설비 설치공사업의 성장률(10.4%)이 높게 나타남

□ 2019년 기준으로 건설업 전체의 영업이익률은 5.8%이며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 6.2%, 전문건설업 4.1%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냈으며, 추이로 보면 종합건설업은 2017년이 고점, 전문건설업은 2018년 고점 이후 하락하였음

- 종합건설업 내에서는 건물건설업의 영업이익률(6.7%)이 토목건설업의 영업이익률(6.1%)보다 높았으나 2017년 건물건설업 수익률 9.8% 비하면 3.1%p 하락함
- 전문건설업종 내에서는 전기 및 통신공사업(6.8%)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건설장비 운영업(5.9%),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4.8%) 순이며, 타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4% 미만으로 전문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4.1%) 보다 낮게 나타남

- 2019년 기준으로 건설업 전체의 순이익률은 3.8%이며, 종합건설업체는 4.0%, 전문건설업체는 2.9%의 순이익률을 나타남
 - 종합건설업 내에서는 건물건설업의 순이익률(5.3%)이 토목건설업의 순이익률(3.3%)보다 높았으나 2017년 건물건설업 순이익률 8.1%에 비하면 3.8%p 하락하였고 토목건설업의 순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전문건설업종 내에서는 전기 및 통신공사업(4.9%)의 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가운데 나머지 업종의 순이익률은 3%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세부업종이 2019년 들어 순이익률이 감소함

- 건설업 외감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9.9%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산업 외감기업의 부채비율 78.5%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임
 - 종합건설업의 부채비율은 148.8%이며, 세부 업종별로 보면 건물건설업의 부채비율이 162.1%로 토목건설업의 부채비율 138.1% 보다 높게 나타남
 - 전문건설업의 부채비율은 88.3%로 종합건설업체보다 낮으며, 업종별로는 장비의 존도가 높은 건설장비 운영업이 163.4%로 높았으며, 반대로 전기 및 통신공사업이 76.1%로 낮게 나타난 가운데 타 업종은 80% 후반에서 100%의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나누어서 산출하는데, 건설업 전체의 이자보상배율은 2019년 기준으로 4.8 수준으로 전체 산업의 이자보상배율 7.0보다 낮아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업종으로 볼 수 있음
 - 종합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4.5배이며, 세부 업종별로 보면 건물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이 2017년 이후 낮아지면서 4.0배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토목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 4.9 보다 낮게 나타남
 - 전문건설업의 이자보상배율은 건설장비 운영업이 2.5배로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전기 및 통신공사업이 13.8로 가장 높게 났으며, 타 업종은 6~9 배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 영업이익 보다 이자비용 많아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기준이 되는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업체는 2019년 기준 613개 업체로 2015년 342개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종합건설업체가 많은 비중(79.7%)을 차지하고 있음

- 이자보상배율 1미만 업체 동향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업 중 건물건설업이 2018년 이후 급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물건설업 내 42.7%가 이자보상배율 1미만으로 나타나 토목건설업 비중 28.1%, 전문건설업의 비중 17.3%보다 높게 나타남

- 건설업내의 한계기업은 2019년 기준으로 184개 업체로 2017년에 비하면 57개사인 44.9%가 증가하였으며, 종합건설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의 증가폭(2.2%P)이 2018년(1.7%P)도 보다 높게 나타남

- 이러한 한계기업 증가에는 종합건설업종의 한계기업 증가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건물건설업 한계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들어 토목건설업의 한계기업 마저 증가하였기 때문임

- 건설업의 한계기업을 분석하기 위하여 업종별 비중(한계기업 업체 수 / 업종내 외감기업 업체 수)을 살펴본 결과 전체 건설업에서 약 12.2%가 한계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종합건설업은 15.8%, 전문건설업은 12.2%의 한계기업 비중을 나타내었음
 - 종합건설업종 중 토목건설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8년 기준 11.8%인 반면, 건물건설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18.6%가 높게 나타남
 - 전문건설업종 건설장비 운영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8년 기준 20.0%로 높게 나타났으나, 타 업종의 한계기업 비중은 7% 이하로 나타났으며,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의 비중이 0.8%로 가장 낮았음

- 규모별 한계기업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전체 184개사 중 25개사로 13.6%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은 159개사로 86.4%를 차지하고 있음
 - 종합건설업종 한계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6.6%이며, 전문건설업종 한계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6.4%로 유사함

- 전년도 대비 변동비를 살펴본 결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율(27.2%)이 대기업의 증가율(4.2%)보다 크게 높았으며, 종합건설업종의 한계기업 기업 증가율(27.6%)이 전문건설업의 증가율(3.8%) 보다 더 높게 나타남
- 건설업 한계기업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결과 수도권(8.6%)보다는 비수도권의 비중(9.2%)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수도권(1.9%)보다 비수도권의 증가율(2.1%)이 높게 나타남
- 한계기업과 정상기업의 재무지표를 비교한 결과 한계기업은 높은 부채비율과 낮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건설업 전반의 재무지표를 하락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건설업 업종 전체의 부채비율은 139.9%, 정상기업은 120.0%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한계기업의 부채비율은 875.5%로 나타남
 - 이자보상배율 역시 건설업종 전체에서 4.84배이고, 정상기업이 6.17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한계기업의 이자보상 배율은 -0.05로 나타났음
 - 한계기업의 영업이익률로 확인한 결과 한계기업의 순이익률은 -0.4%로 업종 전체 및 정상기업 영업이익률 5.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한계기업의 78.3%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계기업의 순이익률로 확인한 결과 한계기업의 순이익률은 -11.4%로 업종 전체 수익률 3.8%, 정상기업 순이익률 4.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전체 한계기업의 76.6%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음
 - ROA(Return Of Assets; 총자산수익률)를 분석한 결과 업종 전체의 ROA가 3.8%, 정상기업의 ROA는 4.1%로 나타난 반면, 한계기업의 ROA는 -11.4%로 나타나 투입된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한계기업의 증가는 부채의 증가 또는 이자율의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증가하거나 매출의 축소 또는 영업이익률 등의 악화 등 영업이익의 적인 측면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음

-
- 그러나 건설업 전체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자율 또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자부담의 증가보다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한계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5년 3월 1.75%에서 등락이 있었으나 1.75%를 넘지 않았고 2019년 10월 1.25%까지 낮아짐
 - 따라서 낮아진 이자율과 낮아진 부채비율을 감안하면 건설업 외감기업의 이자비용은 낮아질 수밖에 없음
 - 반면 주택경기 하락을 중심으로 한 민간 건설경기 하락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설업체 수는 2017년 이후 건설업의 매출액과 수익성이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
 - 종합적으로 건설업 한계기업의 증가 동향은 낮아진 이자비용에도 불구하고 경기하락과 경쟁과다에 기인한 영업이익률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업종 및 규모별로 봤을 때 최근 건설업 한계기업의 증가는 건축업종 그리고 중견 및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산업내의 한계기업의 증가는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자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한계기업 모니터링 강화 및 한계기업 비중 축소를 위한 정책마련 등이 필요함

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방향

- 본 연구는 건설업 외감기업의 경영실적 분석과 한계기업을 도출하여, 기업수준의 산출지표로 건설산업의 동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건설업의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건설업체 중 일부분을 차지하는 외감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 두 번째로 건설업이 지니는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경영실적 지표를 탐색하지 못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한계기업 증가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건설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만의 부실기업을 도출하는 경영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건설경기 하락과 한계기업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및 한계기업 감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특히 건설경기의 하락과 2020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고려하면 2020년의 부실 건설업체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건설업체 경영실적 분석과 한계기업 동향은 주요한 연간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연구가 필요함
-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맞추어 정상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 영위를 위한 연구와 부실기업 퇴출 등 시장 건전화를 위한 연구가 병행 된다면 본 연구의 가치는 증대될 것이고 나아가 건설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 문헌자료

금융감독원, “2019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및 향후 계획”, 2019년
금융감독원, “2019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2020년
산업연구원, 「한계기업 현황과 생산성 분석」,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2014년 하반기」, 2014년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0년 6월」, 2020년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보도자료, 2020년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 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 통계자료」, 각 연도
대한건설협회, 「주요건설통계」, 각 연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업 통계연보」, 각 연도

■ 인터넷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NICE신용평가정보 KisLine, <https://www.kisline.com>
NICE신용평가정보 KisValue, www.kisvalue.com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2019년도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 및 한계기업 분석

2020년 12월 인쇄

2020년 12월 발행

발행인 유병권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0